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5호 2010년 7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모교 미주센터 1주년 기념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 간담회에는 모교 부총장단, 서울대 발전기금, 서울대 미주센터 운영위원, 총영사관 교육영사, LA 교육원장 그리고 미주센터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훈 교수, 김은중 남가주 동창회장 부부, 김하석 부총장, 스티븐 강 UC Merced 총장, 장재성 모교 학생처장.

“미국에서 큰 역할 맡을 대표기관 될 것” 모교 미주센터 1주년 기념 간담회

로스엔젤레스의 모교 미주센터(International Affairs Head of SNU America)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가 지난 6월 10일 Wilshire Grand Hotel에서 개최됐다. 이 날 오후 5시반부터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고 8시 반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스티븐 강 UC Merced 총장이 모교 미주센터 자문위원장의 자격으로 북가주에서 참석했고, 남가주 서울대 동문인 김지영 변호사, 강신용 회계사, 이경희 변호사 등이 새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고국에서 김하석 서울대 부총장, 장재성 학생처장, 남익현

발전기금 상임이사, 남상백 실장이 참석했고 장정주 미주센터 소장과 김인중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LA총영사관에서는 류정섭 교육담당 영사, 교육부의 한상진 LA교육원 부원장, 그리고 남가주에 연구교수로 파견된 교수들이 참석해 미주센터 발전과 육성에 대한 토론을 가졌고 기

능 확충에 대한 제안들을 나누었다. 이들을 요약하면 ▶모교 인턴 학생의 미국내 시스템 제도화 ▶미국 우수대학과 연계제도 강화 ▶미국의 우수학생 모교 유치 등이다. 모교 인턴학생 시스템은 그동안 미국내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미국 우수대학과 연계는 학생 교류와 강의 교류 등 학사 일정까지 연계 제도를 강화할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미국내 우수 학생 모교 유치를 강화를 위해 그동안 뉴욕과 LA에서만 실시해오던 입학 설명회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인계 최초의 UC 총장인 UC Merced의 스티븐 강 총장은 “서울대 미주센터가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아 확립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곧 미국 내에서 큰 역할을 맡을 서울대 대표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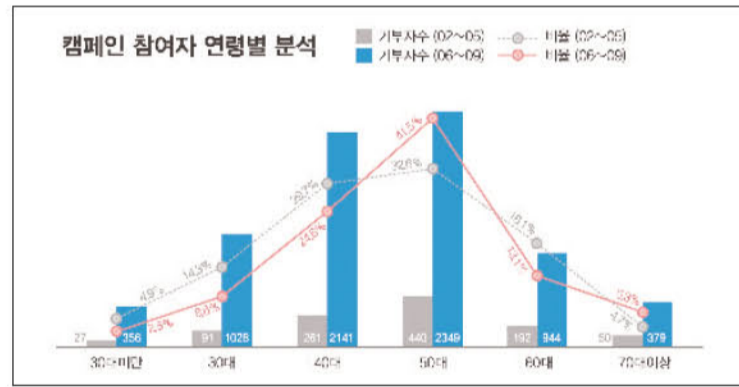
김하석 부총장은 미주센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과 동문들을 치하하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모교 미주센터는 지난 해 5월 로스엔젤레스 코리아 타운 Wilshire 가에 오픈해 정규 강연과 세미나 입학설명회, 인턴 모집 등의 업무를 시행해오고 있다. <김인중 사무국장>

'비전 2025모금 캠페인' 3천533억 달성

세계 10위권 대학도약 발판 마련

이장무 총장은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모금캠페인을 펼쳐왔다. 지난 4년간 펼쳐진 모금 캠페인 'VISION2025'를 통해 총 3천533억원(2010년 6월말 현재, 약정기준)의 모금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목표액 대비 무려 118%의 기금 모금을 달성한 것으로, 당초 목표한 3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Global Excellence),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Social Impact),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Transformation)'라는 목표 아래 세계 석학 초빙, 초일류 인재육성 사업, 캠퍼스 환경 개선사업

등 핵심 모금 사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한 결과 모교는 국내 대학사상 유례없는 기록적 모금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단순히 모금 목표액만 달성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모금인프라를 조성하고, 기부자 층을 다양화하는 모금의 질적 향상도 이뤄냈다. 캠페인의 참여자 연령 비율을 분석해보면, 과거 50대에 집중됐던 기부층이 캠페인 기간동안 전 연령대로 비교적 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라프 참조>
▶30대 미만 2.5% (2002.7~2005.12)→4.9% (2006.7~2009.12)
▶30대 8.6% (2002.7~2005.12)→14.3% (2006.7~2009.12)
30대 미만부터 30대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높아진 것



은 젊은 층의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발전기금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부에 비교적 둔감할 수 있는 젊은 층이 향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캠페인을 통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05년 10%대에 머물렀던 개인 약정액은 2009년 무려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 법인 기업체의 거액 기부에 주로 의존했던 대학의 과거 모금 형태가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2005년과 2006년~2009년까지 캠페인 전후 같은 기간 동안 그룹별 약정액을 비교해보면 동문, 교수, 교직원, 기타관계(비동문) 등 각 집단별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동문 약정액 120.6억원→405.4억원(3.4배 증가) ▶교수, 교직원 약정액 25.7억원→96.6억원(3.8배 증가) ▶비동문(기타관계)약정액 64.2억원→540.9억원(8.4배 증가) <11페이지에 계속>

PRSR STD
NON 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I 1068

종합

총장단·천문과학·권두시



오연천 총장 7월20일부터 직무 시작

부총장에 박명진·이승종 교수 각각 내정

모교 제24대 이상무 총장의 임기가 7월19일 끝남에 따라 제25대 오연천 총장(왼쪽사진)의 직무가 7월20일부터 시작된

다. 그러나 신임 오 총장의 취임식은 8월2일 열릴 계획이다. 모교는 또 신임 부총장에 박명진 교수(언론정보학과, 사진

가운데), 특임 부총장에 이승종 교수(화학생명공학부)를 각각 내정했다. 신임 박명진 부총장은 모교 역사상 첫 여성 부총장이 된다. 모교는 학칙을 개정해 부총장과 특임 부총장을 각각 제1부총장과 제2부총장으로 개편했다.

권두시 '백두 신산(神山)'

天山 天池 天坪 天河

이원택(의대 65, CA)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우주는 넓고 바다는 거칠며 구름이 올라 비가 되고 생명의 근원은 물에서 나온다

짜아 지른 듯이 높고 험한 불피 백두장령 하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삼지 칠성지

빈 골짜기로 소리를 전하고 내는 쉬지 않고 흐르니 위에서 어울리면 아래서 희롱하고 참됨을 지킬 때 뜻이 가득 찬다

맥이 길면 골이 깊고 봉이 크면 강이 실하니 천인단애의 기상과 정관정심의 심상이 합쳐져서

오른 쪽은 대산거락이요 왼쪽은 옥수경림이라 폐어난 못과 이름난 산 장엄한 바위와 유명한 뒷부리

백산 불함산 성모산 삼성산 의류산 려항령 비류봉 병사봉 대장봉 천왕봉 배계봉 차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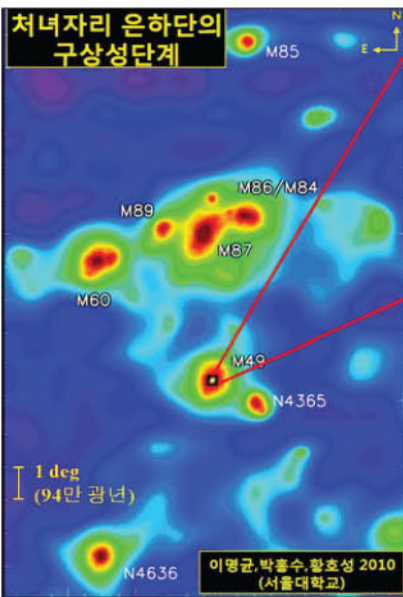
포태산 아구리로 뿔어낸 용왕담 달문지는 동으로 올라가서 두만강이 되고 서로 내려 흘러 압록강 되었는데

큰 산은 굽은 뼈대와 넓은 마루를 포용하는 법 백두대간에 천리천평이라 표하고도 그윽하다

붉은 번개와 푸른 우레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공룡 먹물 같은 구름 사이로 이깔나무 자작나무 헤치는 밤모습

산태극 수태극이 맞닿은 아사달 성지에서 마고선녀의 젓꼭지를 매만지던 환웅과 웅녀

단군왕검 빛어내어 일만년을 내려오니 역만년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흥익인간 되옵소서 (일부는 천자문에서 인용)



←(왼쪽)처녀자리 은하단의 구상성단 지도. 붉은 색일수록 구상성단이 많음을 나타낸다. 가로 폭은 1천만 광년. 구상성단으로 이뤄진 거대구조가 여러 개. 붉은 색 영역의 중심부에는 무거운 은하 등이 있다(열 글자는 은하 이름) 붉은 색 영역 구상성단들은 무거운 은하에 묶여 있으나 녹색 또는 밝은 하늘색에 있는 구상성단들은 은하와 은하 사이를 떠도는 방랑자 구상성단들이다. 이 방랑자 구상성단으로 이뤄진 거대 구조가 처음 발견됐다. 작은 네모(M8)를 확대해보면 오른쪽 위 사진처럼 보인다 (오른쪽 위)처녀자리 은하단의 거대 타원 은하(M86)의 사진. 이 은하에는 1조개의 별이 있다. (오른쪽 아래)우리 은하의 구상성단(M80)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3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축극처럼 둥글게 보이는데 약 100만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다.

모교 이명균 교수 연구팀

방랑하는 구상성단구조 세계 첫발견

모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이명균 교수가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방랑하는 구상성단으로 이루어진 거대 구조를 지난 4월 첫 발견했다. 구상성단은 100만개 별이 모여 축극처럼 보이는 천체다. 생성 120억년 내외로 우주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천체로 빅뱅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주의 거대 구조 연구나 암흑물질 탐사에 매우 유용한 도구다. 은하는 1천억 개의 별로 이뤄진 거대 항성계로 우리 은하는 약 160개의 구상성단을 거느리고 있다. 이 교수팀은 처녀자리 은하단을 연구대상으로 선택, 이에 대한 '슬로운 전천 탐사(Sloan Digital Sky Survey)' 관측자

료를 사용해 관측의 한계를 극복했다. 슬로운 전천 탐사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2.5미터 망원경과 CCD 카메라, 분광기를 사용해 하늘의 1/4을 관측하는 대규모 과제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은하단 중 가장 가까이 있으나 거리가 5천400만 광년이나 된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는 250만 광년으로 2천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인 처녀자리에서 매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구상성단은 100만개 별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약 40광년이나 된다. 그러나 처녀자리 은하단의 거리에 놓으면 너무 멀어 하나의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구상성단과 보통 별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은하단에서 구상성단을 찾는 것은 갈대밭에서 바늘 찾는 것과 비슷하며, 구상성단의 지도를 만드는 것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바닥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교수팀은 관측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처녀자리 은하단에 있는 구상성단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를 이용해 은하단에서 구상성단으로 이뤄진 매우 거대한 구조를 발견했다. 구상성단은 대부분 무거운 은하 주변에 몰려 있다. 은하와 은하 사이를 방랑하는 구상성단들이 있으며, 이들은 은하보다 훨씬 거대한 구조(크기는 수백만 광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처음 찾아냈다. 이 교수의 연구성과 논문은 사이언스(Science) 게재 승인 후 온라인판인 사이언스 익스프레스(Science Express)에 3월 11일 먼저 게재됐다. 이 교수는 "이 방랑자 구상성단들의 정체는 아직 모른다. 이들은 아마도 우주 빅뱅 직후 태어난 작은 은하들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상성단들은 후에 주변의 무거운 은하에게 살던 집을 뺏기고 오늘 날까지 은하와 은하 사이를 방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하단은 수천 개 은하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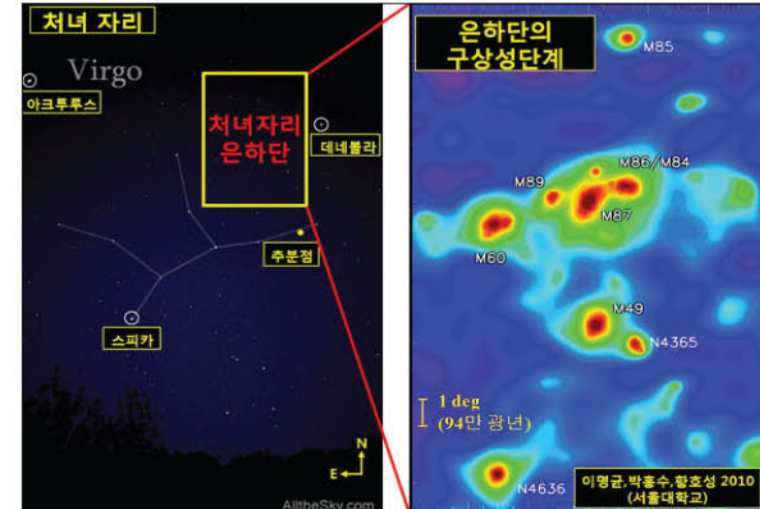
워 은하 사이에서도 떠도는 구상성단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구상성단이 은하단의 중심부로 몰릴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은 20여년 전부터 있었다. 그동안 이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구가 시도됐으나, 관측의 한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왼쪽)큰 사각형이 처녀자리로 은하단의 위치를 나타낸다.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3개(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처녀자리의 스피카, 사자자리의 데네볼라)와 추분점(노란 점)을 표시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채홍(NY) 백순(DC) 오강남(BC) 오기창(CH)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쾌(SF)장석정(CH)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정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례(사)

- 이번 호의 차례
- 3. 정년 퇴임 이상무 총장 인터뷰
 - 4~6. 미주 동문 동점
 - 7. 노벨문학상 & 경제
 - 8. <논단> 제언 & 시
 - 9. <논단> 수필 & 시평

- 10. 6.25 한국전쟁 회상기
- 11. 내가 좋아하는 쇼파의 작품들
- 12. 감마 나이프로 첨단 무혈 뇌수술
- 13. 치과의 질병과 예방
- 14. 고국 동문 신간 & 공연
- 15. 세계명화 지상감상(마크 샤갈)
- 16~18. 각 지부 소식

- 19. 고국 동문동점
- 20~22. 동창회비·후원금 납부현황
- 23~29. 동문 업소록
-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 31~32. 광고



특별인터뷰

퇴임하는 이장무 총장

“국가에 공헌, 인류에 큰 영향미치는 서울대 돼야”

덕성 갖춘 ‘일품인재’ 양성도 사명

지난 2006년 7월 취임한 이장무 총장이 모교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학문 융복합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연구 시스템 개선 등의 성과를 남기고 7월 19일 임기를 마친 뒤 8월 정년을 맞아 캠퍼스를 떠난다.

대학신문 주간을 역임한 언론 정보학과 양승목 교수가 총장을 만나 퇴임 소회와 4년간의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취임하신 때가 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퇴임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이라는 목표로 지난 4년 동안 구성원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모교가 많은 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더 타임즈 세계대학평가 석학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오르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균형선발, 지역활당계 등 국립대로서의 책무를 확대해가면서 여러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대학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함께 이룬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을 위해 해외 석학 초빙과 육성, 융복합 교육 연구 시스템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어떤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울대 주요 지향점 중 하나가 세계적 학문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수 교수진의 확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 석학과 국·내외의 우수한 학자들의 초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0년 초빙·점임교수를 합치면 외국인 교수가 현재 200명이 넘습니다.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첸 교수와 필즈 메달 수상자인 히로나카 교수 등 세계적 석학 교수가 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부족한 점이었던 학문 분야 간 소통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연계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을 만들고 자유전공학부, 융합과 학기대학원, WCU 등을 개설해 어떤 전공이든 들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원하는 전공을 만들 수 있게 파격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오랜 과제였던 정치학과와 외교학과의 통합도 이루어졌습니다.

국제 학술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교수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대의 국제화 성과와 진정한 국제화란 무엇인지, 특히 서울대가 가야 할 국제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요.

-2007년 세계 유수 대학 총장을 초청해 세계대학 총장포럼을 개최하고 ‘세계적 연구대학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

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의 역할과 방향은, 대학이 세계적 수준과 범위에서 지식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했고, 그 결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체결 대학의 수가 4년 전 4개에서 14개로 증가했습니다. 200여 명의 외국인 교수와 3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 입학하면 세계적인 강의를 듣고, 공동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제화란 외국인 교수, 우수한 외국인 학생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문화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모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던 상태에서 VISION2025 모금 캠페인'의 선진적 시스템

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의 역할과 방향은, 대학이 세계적 수준과 범위에서 지식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했고, 그 결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체결 대학의 수가 4년 전 4개에서 14개로 증가했습니다.

기금 모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던 상태에서 VISION2025 모금 캠페인'의 선진적 시스템

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의 역할과 방향은, 대학이 세계적 수준과 범위에서 지식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했고, 그 결과 공동학위, 복수학위 체결 대학의 수가 4년 전 4개에서 14개로 증가했습니다.



이장무 총장(왼쪽)이 양승목 교수의 인터뷰에 응해 환담하고 있다.

을 도입하셨습니다. 기부 시스템과 기부 문화의 질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성과와 보완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과거 모금방식은 기업이나 독지가에게 개별 접촉해 기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비효율적이고 일회적이었습니다. 외국 선진 기부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기부자 맞춤형 예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감사와 후원의 밤, 학부모 초청행사, 캠퍼스 투어를 진행해 대학과 후원자, 동문이 끈끈한 유대를 가지도록 해왔습니다. 집중 모금 캠페인으로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문이 동참했습니다. VISION2025 모금 캠페인으로 3천억원 목표를 지난 4월 조기 달성했으며, 6월 현재 3천500억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모금 시스템이 분산돼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 대학은 동창회-본부 일체로 대학 중심 모금 형식인데 반해, 서울대의 경우 총동창회, 단과대학 동창회, 학과(부) 동창회, 발전기

대 법인화는 민영화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국립대에서 공적 법인형태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립대 법인법에는 기초 학문을 육성하고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학생은 여전히 '국립 서울대 학생'이며, 교수와 직원이 공무원 신분은 내놓게 됩니다. 여야 정치적 대립으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인화법이 여전히 계류중인데, 법인화 법률안이 충실히 보완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현재 한계점에 달한 관악 캠퍼스는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고 국제캠퍼스, 멀티캠퍼스 등을 추진하셨습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우리 캠퍼스가 어떻게 재구성돼야 하겠습니까?

-관악캠퍼스는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캠퍼스로 보존해야 합니다. 도교대, 교토대 등도 기존 캠퍼스의 1시간 이내 거리

에 제2캠퍼스 두 곳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에 따라 새 캠퍼스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첨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창에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화와 관련해 시흥군자지구에 국제 캠퍼스 조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지구인 인천 송도 인근으로 관악 캠퍼스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관악 캠퍼스의 연장 개념으로 다양한 학문간 연계와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 명문대-서울대 복수학위, 공동학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21세기에 대학의 역할, 특히 서울대의 사회적 역할, 책임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개교 60주년에서 서울대의 사명에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실천적 지혜를 갖춘 인재 양성' 하는 부분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서

서울대가 깨어나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 서울대의 '변화'에 기부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감동과 힘을 얻었습니다. 서울대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 재산을 다 내놓은, 사회적인 명성은 없지만 감동을 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임 초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70대 할아버지와 만남이 기억납니다. "공부를 못했던 한을 풀고 싶다" 힘겹게 모으신 전 재산 2억 원 수표로 장학금을 출연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거의 대학과 사회에 환원하신 정석규 동문, 미래 인재를 키우시는 김선동 동문 등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회 약자를 생각하며 사회에 환원해 어려운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노력을 바치는 사람들, 발전기금 모금 과정에서 모금 자체보다 그 분들을 만나며 느낀 감동이 더 많았습니다.

퇴임 후 바로 정년이 됩니다. 직선제 실시 후 4년 임기를 마치고 바로 정년을 맞으시는 총장은 처음입니다. 퇴임 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건강하게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로 퇴임하게 돼 행복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년을 잘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 동료 교수들 덕분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지치고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년퇴임을 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최근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기후 변화는 세계적 문제면서 범위가 넓은 다학제적 분야로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속가능'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구성원들과 서울대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예일대 레빈 총장은 서울대와 도쿄대를 '아시아의 앞서가는 대표 대학'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기자는 "2025년 세계 10위권이 장기발전목표인데 현재 추세로 2020년 1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기본 좋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 정년 보장과 승진 시스템을 강화해 미안한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우리 서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민주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선두에서 사회가 최종적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용기, 성찰적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서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립대의 책임, 역할을 이어나가고, 국가에 공헌하며,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가 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대의 지식인 양성은 일등인재가 아니라 덕성 갖춘 일품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품인재는 섬김의 리더십, 나눔의 지혜를 갖춘 인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를 지도해주면서 환원하는 세파 멘토링과 해외 봉사, 다문화 가정 나눔, 프 로네시스 나눔실천단 활동 등 매우 다양합니다. 6천400여 명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했으며 전국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인들은 과거 냉철한 지성을 가진 인재라는 평판에서 벗어나,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그들이 그늘진 곳을 떠나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재미 중 인삼적인 기억, 아쉬움이 남은 기억, 고마운 사람 등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간 농생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시던 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전에 서울대는 잠자고 있었다. 최근

동문 동정

특별강연·수상·작품전·기타



김은종 동문 미주포럼서 특별 강연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인 될 것”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회장인 김은종 동문(상대 59·사진)이 지난 5월 열린 미주 포럼에서 자신의 기업 역정을 펴 려했다. 현재 남가주 총동창회장인 김 동문은 서울대 미주센터가 마

련한 ‘미주포럼’의 첫 연사로 나서 40여년에 걸친 자신의 미국 비즈니스 인생을 공개한 것이다. 김 동문이 설립한 ‘뉴 프라 이드 코퍼레이션’은 항만·도 로-철로를 잇는 복합 물류 시

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회사로 현재 미국내 160여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30여 곳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 타이어 공장도 있다. 또한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코스닥 증시 상장에 성공해 화제를 일으켰다.

김 동문은 “2년 전에 은퇴 여 부와 회사 장래를 놓고 심각하 게 고민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업인이 아니라는 존경하는 기업인의 조언을 듣고 회사를 더욱 공격적으로 키우려고 결 심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2년 여에 걸친 코 스타드 상장 과정은 너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ROTC를 통해 배 운 독심과 인내심으로 이겨냈 다”고 고백했다.

김 동문은 이어 “사람은 의 욕을 세울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숫자 나이에 구 에받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사 회적 책임있는 기업인으로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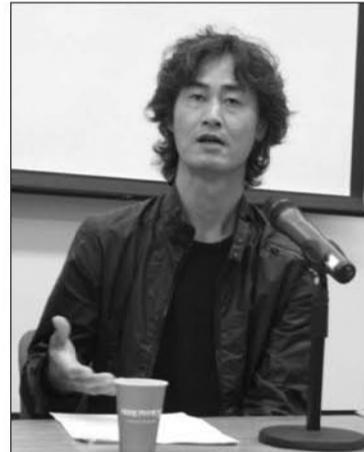
소설가 정영문 동문 UC버클리서 작품낭독과 대화 언어실업적 작품활동 계속알 터

작가 정영문 동문(36 사진)이 버클리 대학과 대산문화재단이 공동 시행하는 한국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버클리에서 왔다.

정 동문은 버클리대 한국학 센터 주최로 지난 4월 25일 열 린 포럼에서 자신을 소개하면 서 혁신적이고 언어실업적인 작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언어 실업적인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

정 동문은 이날 2001년 발표 한 단편 소설 ‘무게 없는 부 피’를 낭독한 후 참석자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 를 소개했다.

정 동문은 “이 작품의 형식 자체가 회곡으로 5년 전 포틀 랜드의 극장에서 공연, 청중들



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 소설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소설은 노년에 췌장암에 의 지해 쓸모없고 하나하나한 일 상을 반복하는 화자(주인공)를

통해 인생이 덧 없고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 동문은 지난 3개월 동안 샌 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작품을 읽고 캐스트로 스트릿 동성에 자들의 지역형성과 억압, 역사 등 여러 사실을 알게된 것이 가 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체험하고 산책 들을 통해 보고 느끼며 알게된 여러 사실을 토대로 한권 분량 의 ‘샌프란시스코 체류기’를 집필할 계획을 밝혔다.

죽음과 존재의 문제를 실험적 인 형식으로 표현해 문단의 주목 을 받고 있는 정 동문은 최근 ‘장편 소설 ‘마젤린과 붓 단’을 출간했다.

정 동문은 목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문단에 데뷔, 1999년 ‘검은 이야기 사 술’로 제12회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백연희 동문 작품전

백연희 동문의 개인 작품전이 지난 5월부터 6월 25일까지 샌 프란시스코의 브라운스타인/케이 갤러리에서 열렸다.

백 동문은 어린 시절 추억과 맨해튼 고층 아파트 생활, 여 행 등의 추상화를 선보였다.

“어렸을 때 한국전쟁으로 부 산 송도 피난시절의 바닷가의 풍경이 잊혀지 않는다. 무의식 적으로 그 시절의 기억들을 그림 에 담았다. 하얀 빛과 사다



리 등 위로 상승하려는 열망과 동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다”고 말한다.

백 동문은 모교 미대 졸업 후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명호 동문 KOWIN워싱턴 지부회장 선출

남명호(의대 75) 동문이 세계 한인족 여성네트워크(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워싱턴 지부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KOWIN 워싱턴 지부는 최근 제 2회 정기모임에서 회장 및 신 임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남명호 동 문은 모교 의대 졸업후 워싱턴 호스피털 센터, 마요(Mayo) 클 리닉, NIH와 조지타운 대학 병 원 등을 거쳐 이노바(INOVA) 페어팩스 병원에 근무중이다. 남 동문은 “한인 여성 네트 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연대를

강화시켜 상호 협조하는 모범 적인 여성단체가 되도록 이끌 겠다”고 말했다.

KOWIN은 지난 2001년 고국의 여성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여성과 세계 170여 곳에서 활 약하는 동포여성 교류와 연대 를 구축하고 한인족 여성인적 자원을 개발, 국가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시작했다.

김주진 동문 유엔대 학장상 수상

엠코테크놀로지 설립...한국인으로 처음

엠코테크놀로지 설립자인 김 주진 동문(74·사진)이 한국 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29일 유엔대 경영대학 ‘와튼 스쿨 학장상’을 받았다.

1983년 제정된 ‘와튼스쿨 학 장상’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 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오스카르 아리아스 코스타리 카 대통령, 레이널드 존스 전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 등 39명이 수상했다.

한국 아남그룹(1968) 창업주 고 김향수 씨의 장남인 김주진 회장은 이끄는 엠코테크놀로 지는 아남산업을 미국 시장 확 대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반 도체 칩 조립과 가공, 테스트 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 트, 모토로라 등과 거래를 확 대해 왔으며, 1998년 나스닥 에 상장됐다. 김 회장의 지분 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김 동문은 지난 2000년 10월



미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내 400대 부호 중 94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국인이 미국내 100대 부호에 들기는 처음으로 당시 김 동문 의 재산은 27억달러로 평가된 바 있다.

김 동문은 모교 법대를 수료 하고, 유엔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빌라노바대 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고영수 동문 전국포장

고영수 동문(미대 57·사진 오 른쪽)이 지난 4월26일 뉴욕 총 영사관으로부터 한국정부가 수여하는 4.19혁명 유공자에 대 한 전국포장을 받았다.

4.19 당시 모교 2학년생이였 던 고 동문은 3.15 부정선거 규

탄 시위에 나섰다다가 다리에 총 상을 입는 등 자유당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적극 가담했던 점 이 높이 평가됐다.

이 날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4.19 혁명 유공자로 고 동문 외 에도 배시영 뉴욕대한체육회전 회장과 김천길, 김태웅씨 등 3 명에게도 시상했다.

김반디 동문 독창회

소프라노 김반디 동문(사진) 의 독창회가 지난 5월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메리칸대 카젠 아트센터(Katzen Arts Center) 에서 열렸다.

주제는 ‘Die Mainacht’) 즉 ‘5월의 밤’으로 19세기 낭만 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주세 페 베르디와 페데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알프레도 카탈 라니를 비롯해 20세기의 프랜 시스 풀랑, 아놀드 뢰베르그의 음악이 공연됐다. 안토니오 비 발디의 도입곡에 이어 한국의 가곡도 들려주었다.

김 동문은 모교 음대 성악과 를 졸업한 뒤 미 보스턴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동문은 서울과 미국을 오 가며 7차례의 독창회와 실내악 협연 등을 했고 라보엠, 마술피리 등 오페라에도 다수 출연 했다. 세라 아너슨, 리차드 캐 실리, 마리에나 말라스 교수를

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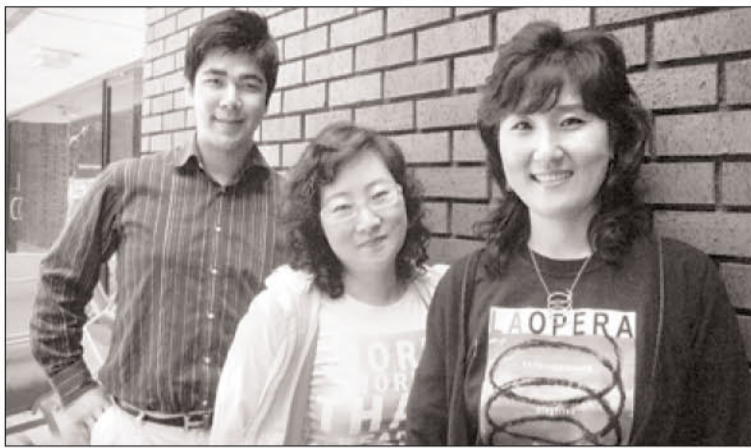
이날 연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그레이스 조 역시 모교 음대에 서 피아노를 전공, 텍사스 오 스티븐에서 석사, 메릴랜드 대학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난 도어 대학 음악학교에서 부교 수로 재직중이다.

특히 이 음악회는 모교 음대 총동문회와 보스턴대 총동문회 가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하 우스와 함께 후원했다.



동문 동정

콘서트 · 출판 · 강연 · 회고



조셉 림 동문 위한 자선음악의 열려

LA의 '오페라협회 보헤미안' (회장 이주현·대니얼 고) 이 지난 6월 바리톤 조셉 림 (입경택·사진 왼쪽) 동문을 후원하기 위한 제6회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다.

조셉 림 동문은 모교 음대와 USC 대학원을 졸업, 2008년 팜스프링스 오페라 길드 성악대회에서 1등, 로렌 L. 재커리 전국대회 입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 수 차례 리사이틀과 오페라에서 주요 배역을 맡아 공연했고, 솔로리스트로서

말러 8번 교향곡, 모차르트 미사곡 헨델의 메시아 연주했다.

또한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서부지역 결선에서 2등을 차지한 성악가로, 이날 연주회에서는 스트라우스와 토스티, 거쉰의 곡들과 바그너의 탄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LA오페라 '링'의 총감독 Achim Freyer의 한국인 아내 에스터 이(Esther Lee·사진 오른쪽)씨가 초청패 수준 높은 음악회를 보여주었다.

백혜선 동문 제12회 국제 키보드 페스티벌 참가



뉴욕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동문(사진)이 맨해튼 메네스 음대에서 열리는 제12회 국제 키보드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백 동문은 7월 28일 오후 8시 30분 메네스콘서트홀(150 West 85th St.)에서 연주한다.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리는 국제 키보드 페스티벌은 유망주 피아니스트의 콘서트인 '프리스트리지 시리즈'와 저명 연주자, 교수 피아니스트들이 진행하는 '마스터 시리즈'로 나뉘어 진행된다.

백 동문은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NEC)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1년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그 뒤 서울대 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돼 후학을 가르치다 2006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고 강대원 동문, 한국인 최초 미 특허청 '명예의 전당' 헌액 "이 한국인이 없었다면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없었다"

지난 1992년 작고한 고 강대원 동문에 대한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연구업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관계 전문학자들 중 강 동문을 크게 아쉬워 하는 인사들이 많다. 최근 조선일보가 고국의 IT산업 침체와 그에 대한 글을 게재해 이를 요약해 게재한다.

트랜지스터 개발 연구진과 IC를 개발한 사람은 차례로 노벨물리학상을 탔다. 강 박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그들에 이어 노벨상을 탔을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7년 뒤인 1967년 강 박사는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전원을 꺼도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오늘날 보편화된 플래시 메모리의 기초다.

이처럼 반도체로 만든 기억장치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소니 워드램 등 데이프형 휴대 녹음기와 필름 카메라는 종말을 맞았다.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제친 것도 따지고 보면 강 박사의 연구성과를 말 빠르게 활용했기 때문이다.

애플 아이폰도 핵심부품 중 강 박사 덕을 보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 메모리 카드도 마찬가지다.

강 박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었을까.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

지난 1955년 도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탔다. 당시 세계 최고였던 벨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가 29세에 모스펫을 개발해 32세 때 특허를 냈다.

30년 가까이 벨연구소에 몸담은 그는 고국 지인들과 교류 기회가 많지 않아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지만 미국에서의 명성은 대단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전자



기술인협회(IEEE)와 벨연구소 펠로를 지냈고 오하이오 대학의 '탁월한 졸업생상'을 탔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프랭클린 인스티튜트의 '스튜어트 발랜턴 메달'도 수상했다.

작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에디슨, 벨, 라이트 형제, 노벨 같은 발명가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IC 개발 50주년을 기념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강 박사의 모스펫 개발로 반도체 산업이 지금같은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됐다!"

강 박사는 1988년 벨연구소를 떠난 뒤 컴퓨터와 통신기술 기초연구를 위해 만든 NEC 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았다. 이후 전자공학 학회지 등을 통해 앞선 기술과 학문을 국내와 관련기업에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이력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외면을 당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와 인연을 맺었던 회사들이 현재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회사와 경쟁관계였던 점 때문에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동문 문봉주 목사 사경회 강연



뉴욕 총영사를 역임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서울 은누리교회 부목사로 활동하는 문봉주(사진) 동문이 필라델피아 외곽에 위치한 엠블러 장로교회에서 지난 4-6일 강연을 가졌다.

문 동문은 '축복말씀 사경회' 강사로 초빙돼 이같은 강연을 가진 것이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새벽형 크리스천' 등의 저자인 문 동문은 뉴욕 총영사 재임 때 필라 교회협이 주최한 필라복음화대회 강사로도 참석한 바 있다.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문 동문은 과거 뉴질랜드 대사와 뉴욕총영사, 외교부 본부대사를 역임했다.

이선명 동문 신간 출간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언론인 이선명 동문이 영어 교사성어를 정리한 '트로이 목마'를 지난 4월 출간했다.

이 동문은 "서양 문명의 시원인 고대 그리스부터 르네상스까지 큰 역사적 사건 속의 언어

를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대화체로 재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동문은 모교 정치학과 졸업 후 1964년 코리아 헤럴드 기자, 동화통신 기자로 재직중 1979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현재는 'US News' 주필로 근무중이다.

현원영 동문 시조집 '낙랑 하늘 그리며' 출간

샌 안셀모(San Anselmo)에 거주하고 있는 시조시인 송운 현원영 동문이 제2 시조집 '낙랑하늘 그리며'를 출간했다.

현원영 동문은 지난 2007년 첫 시조집 '타는 노을 앞에서'를 내놓은 이래 3년만에 두번째 시집을 내었다.

도서출판 동경(대표 김성철)이 간행한 시조집에는 성인 시조 53수, 동시조 41수 등 도합 94수의 시조가 실려있다.

현 동문의 시조에 대해 유성규 한국 아동시조시인 협회장(시조생활지 발행인)은 "근래에 보기드문 역작"이라면서

한 민족의 영혼이 깃든 역사물을 소재로 유려한 전통적 미학을 되살린 작품"이라고 평했다. 또 그는 고도의 수사학적 역량을 동원한 이미지 창출이나 글발의 결속음이 맛깔있고 흐름의 유려함이 이 시조를 격상시켰다고 적고 있다.

김봉군 문학평론가(가톨릭대 명예 교수)는 "소박한 생활 시조의 차원을 넘어선 예술 시조"라면서 '사랑과 소망의 현시'로 결론지었다.

현 동문은 "늦깎이로 시조를 배우는 과정에 두번째 시조집으로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어느새 83세를 맞아 이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심정을 밝혔다.

현 동문은 1928년 서울에서 출생, 경기여고와 모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1953년 미국으로 유학왔다. 빌라 마리아 칼리지와 버틀러 대학 졸업, 워싱턴 대학(UOW)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 Marin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남편은 오장욱 박사다.

현 동문은 2003년 시조생활사 제53회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등단, 2008년 제2회 미주 동포문학상, 2010 시천시조문학상 해외부분 제1회 본상 수상 등 노력에도 시조 쓰기에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동문 동정 특별강연·출판기념회·작품전·기타



주경야독 끝에 변호사 된 정용덕 동문

“힘들어 죽을 뻔 했다”

세계적 회계법인 KPMG에 근무하며 2005년 가을부터 2009년까지 LA Loyola Law School 야간 과정을 다닌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정용덕 동문(경제 94)이 Acropolistimes와 인터뷰했다.

정 동문은 지난 4년간의 공부로 “힘들어 죽을 뻔 했다”고 털어놨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변호사를 생각한 계기는.

-우선 사람들이 흔히 ‘법대에 가 변호사 자격을 따볼까’ 하는 욕심처럼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둘째, 장사 능력을 떨어지고 뭐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힘들었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

-첫 학기 때 애가 태어났는데 그 때 참 힘들었다. 오전 9시 쯤 출근, 6시까지 일하고 9-10시 수업을 마치면 다시 회사에 와서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 애 밥 주고 3시까지 책 보고 다시 애 밥 주고, 자기 일어나 회사 가는 거였다. 법대 진학을 꿈꾸는 30-40대들이 많은데.

-고려해야 할 점은 체력이 예전같지는 안르울 것이라는 점, 머리가 예전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시간이 나도 딴 생각들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졸업 기간이 길고 수업 부담이 일반 대학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다는 점, 돈도 많이 들고 등이다.

<Acropolistimes.com>



정두현 동문 출판기념회

지난해 한국의 ‘시문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한 정두현(의대 56, 사진 앞줄 가운데) 동문이 첫 시집 ‘부다페스트의 환상’을 펴내고 최근 메릴랜드 포토맥 자택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시집은 총 127페이지로 40여 년간 지내 온 미국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깊이를 더듬으며 써내려간 작품들이다.

‘한려수도’, ‘은회색’, ‘두 개의 얼굴’, ‘행려병자’, ‘어머니는 낙타가 되어’, ‘지리산’ 등 6부로 나뉘며, 정 동문이 그린 그림과 조각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정 동문은 “시는 인간의 영혼을 긴 겨울잠에서 깨워준다. 그래서 시는 언제나 새봄 같고, 그레야 한다”고 밝혔다.

1936년 경북 상주 출생인 정 동문은 모교 의대졸업 후 1966년 도미해 조지타운대 방사선

과 임상조교수를 지냈다. 한편 코코란 미대와 아메리칸 미대, 몽고메리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후 미술가로도 활동, 예일대 미대 그룹전(2002), 개인전(2003) 등을 열었다. 지난해 워싱턴 미주한국시문학회(회장 권귀순)가 발간하는 시전문지 ‘시향’ 신인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 동문은 “시를 통한 인생 참회록으로 삶을 돌아보며 써내려간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안원상 교수 강연의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한완상(74·사진) 동문 초청 시국강연회가 지난 5월 29일 LA의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강연 제목은 ‘무엇이 민족통일과 평화를 어렵게 하나’로 최근 북한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했다.

한 동문은 모교 사회학과 출신으로 사회학과 교수 재직중 2번의 육교를 치르는 등 민주화 운동의 실천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97년 2월-12월), 김대중 정부 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1년 1월-2002



년 1월), 노무현 정부 때 대한적십자사 총재(2004년 12월-2007년 12월)를 지냈다.

이 행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가 주최했다.

허종렬 동문 특별강연

세크라멘토 주립대 방문 교수인 허종렬 동문이 북가주 한국학교협회(회장 최미영) 제14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서 ‘재미한국학교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지난 6월 강연했다.

밀피타스 리빙위드 연합교회에서 열린 ‘제14기 교사 집중 연수회’는 한인 2세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과정 중 하나다.

재외동포재단과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원장 김신옥) 후원으로

열린 이 연수회에는 미주 26개 한국학교에서 110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이 연수회에는 김완하 한남대 교수(UC버클리 방문교수)가 ‘글로벌 시대의 글쓰기에 필요한 상상력과 시정신’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있었다.

남기라 동문 작품전

미국 이름 ‘키라 그린’으로 알려진 남기라 동문의 개인 작



품전이 최근 브루클린 덤보의 A.I.R. 갤러리(111 Front St.)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의 주제는 ‘성찬 축제 (Feastiality · 작품 사진)’다.

출품작들은 관능적인 음식의 이미지와 동서양에서 직물, 패션, 인테리어에 사용된 패턴을 혼합해,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 동문은 모교 외교학과 졸업 후 89년 미국으로 이주,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색 경력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MCLA G51

51 Main St. North Adams, MA. Open daily 10am - 5pm. www.mcla.edu

TOWN STREET
Dariusz Stronka Art
June 24 - October 17, 2010
A downtown wide celebration of the arts in North Adams with 11 new galleries, over 94 visual arts displays and happenings throughout the summer and fall. For more information, North Adams art map and list of events, visit www.downtownadams.org.

Linda Mielko Allen, Young Ja Yoon
July 29 - September 23, 2010
Opening Reception: Jul. 29, 6-8 p.m. @ Downtown Art & Theater

An exhibition of abstract mixed media artworks by two locally-bas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exhibited artists. These works fuse form in a variety of space, time and accessibility.

Young Ja Yoon City

Quantum Spectrums
September 30 - October 24, 2010
Opening Reception: Sept. 30, 6-8 p.m. @ Downtown Art & Theater

An exhibition of artwork with roots in graffiti and street perception art and whose forms and scope reach in a vast array of exhibitions, from personal images to leading machines, fabric reactions to books and installations. This show runs the gamut. Park, Street, Artwork, Music, Costa, Dharma and more. Created by John Beecher.

MASSACHUSETTS COLLEGE OF LIBERAL ARTS

윤영자 동문 개인전

윤영자(미대 60) 동문이 7월 29일부터 Massachusetts에서 (51 Main St. North Adams MA)에서 초대전을 갖는다.<왼쪽 브로셔 참조>

윤 동문은 그동안 서울과 뉴욕에서 6번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초대전의 주제는 ‘Sky’로 지난 2009년 New York Phoenix Gallery에서의 개인전과 같은 주제로 열리는 것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장한 윤 동문은 밤 하늘의 별들과 달빛을 좋아했다. 이번 작품은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의 세계를 그렸다고 한다.



신명수 동문 8순잔치

예일(Yale)대 의대 방사선과 교수로 재직중인 신명수 동문(의대 49)이 지난 4월 자택에서 8순 생일 축하연을 가졌다.

신 동문은 현재 Connecticut의 New Haven시에서 거주 중이다.

박은성 동문 지휘 연주회

박은성 동문이 지휘한 ‘Korea Symphony Orchestra’가 창단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LA 세리토스 ‘피포밍 아트센터’에서 기념 연주회를 열었다.

박 동문은 모교 음대 기악과를 졸업한 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지휘를 전공했다.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의 거장 오트마 슈이트너에게 사사했다.



논단

노벨 문학상 & 경제

아시아인 노벨 문학상 소감<1>

아시아인 수상자가 드문 이유



김일훈(의대 57년졸)

▶노벨문학상 선발과정= 노벨문학상은 노벨위원회의 위촉으로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선발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매년 초 약 1천명의 후보자 지명 의뢰서를 세계 각국의 문학학술원, 문인협회, 노벨문학상 전 수상자 등에 발송, 2월1일까지 회답을 요구한다.

그 결과 약 50건의 회답에서 100명 전후의 후보자를 접수하게 되며, 그 후 노벨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한다. 위원 심사에서 4월 말까지 후보자를 20명 선으로 압축하고, 심사를 거듭해 7월까지 약 5명의 최종 후보 리스트를 작성한다.

10월, 아카데미에서 위원 전원참가에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수상자로 결정, 12월에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근래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가까워지면 한국뉴스에 유명한 한국 문인의 문학상 후보자 이름이 나타났다가 발표엔 항상 탈락되기 마련이었다.

여기서 탈락된 한국인 후보는 위의 100명 전후 명단에 포함 된 한국서 선정된 후보에 속하는지, 아니면 1차 심사에 합격한 명단(20명) 또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5명)에 속하는 지 모를 일이다.

우수한 한국작품이 추천됐다 가 탈락된 이유는 번역된 작품의 평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심사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몇 개월후 올 2010 수상자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노벨재단 규약에도 '작품평가에 곤란이 생긴 결과 장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경우 추천검토를 중단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의 벽= 노벨상 가운데 특히 노벨문학상 선발의 문제점으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들 수 있다.

수상자 선발은 영어와 스웨덴·프랑스·독일 등 유럽 언어권에서 심사 선발되기 때문에 아

무래도 유럽과 영어 문화권에 편제하기 마련이다.

유럽의 여러 민족은 그 언어계통과 표현방법이 비슷하고 또 문화배경이 같고 보면 서로 꽤 번역도 용이하며 따라서 이들 스웨덴 심사관에겐 영어나 프랑스어나 스웨덴어로 쓰였거나 번역된 유럽인의 작품심사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유럽 지역 작품으로서 영어나 프랑스어 등으로 쓰인 원작도 마찬가지다.

예로 아시아인으로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타고르(1916년)는 영어권에 속하고 그의 수상작은 인도어와 영어로 돼 있다. 오래 전 문학상 최종심사에 올랐다가 2차 대전으로 수상이 중단된 중국의 임어당(林語堂) 작품은 영어로 쓰였다. 그리고 2000년도 중국계 가오싱젠(高行健)의 수상작은 프랑스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Wole Soyoyinka의 작품(1986년 수상)은 영어, 남미 콜롬비아의 Marquez(1982년)와 과테말라의 Asturias(1967년) 작품은 스페인어로 쓰였다.

이처럼 많은 비 유럽인 수상작품은 유럽언어며 아직도 제3세계 지역의 언어로 된 작품이 선정될 찬스는 드물다고 하겠다. 그래서 인구 900만에 불과한 스웨덴이 받은 문학상 수(6개)는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인이 받은 수상자 수(6인. 표 참조)와 동등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 수상자도 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川端康成(1968년)과 大江健三郎(1994년)이며, 여기에 관한 설명은 다음 장에 미룬다. 아시아인의 또 다른 예외는 2006년 수상자 터키의 Orhan Pamuk과 1966년 이스라엘의 Shmuel Agnon이며, 이들 작품은 아시아인 언어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국제성이 뚜렷한지라 심사가 용이했던 케이스다.

Pamuk는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자 많은 명작을 선보인 작가다. 그의 작품들은 50개 언어로 번역돼 700만부 이상 판매됐다고 한다. 2002년 출판해 2004년 영어로 번역된 그의 소설 '눈(Snow)'은 뉴욕타임스서 '2004년도 세계 10대 Best Book'의 하나로 선 발됐을 정도다.

그는 또한 미국 콜롬비아대학 객원교수(1985-1988년)를 거쳐 2006년 그곳의 중동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취임했으며,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아시아인인 그 자신이 국제적 저명인



사고, 노벨심사관은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번역서에 대해 아무런 불편 없이 검토한 결과 수상자로 결정했을 것이다.

1966년 수상자인 이스라엘 작가 Agnon 또한 국제적으로 저명도가 높으며, 노벨문학상 받은 최초의 히브리어 문학 작가다. 오스트리아의 지방에서 태어나 8세부터 히브리어와 이디시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천재작가다. 25세때 독일에 이주해 작가활동을 지속하다가 36세에 선조의 땅 이스라엘에 영주하게 됐다. 유럽에 오래 거주해 독일어 저서가 있을 정도며, 현재 미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의 저서(영어번역) 50권의 대부분은 별 5개의 명작마크가 붙어 있다.

이렇듯 유럽문화 속에서 자라난 국제성으로 해서 그의 작품심사에 어려움이 적었을 것이고, 또한 히브리어 문학에 대한 세계 유대인의 단합된 후원 역시 수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한국과 노벨문학상= 한국 문제에 들어가, 필자가 아는 한 미국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호평받은 한국계 작품은 1년 전 작고한, 미국 국적의 한국인 1세 김은국(金恩國 Richard E.Kim, 1932-2009·사진)의 영어 저서 뿐이며 1960-1970년 출판된 'Martyr(순교자)'와 'Lost Names(잃어버린 이름)'은 미국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김은국은 우리 서울대 동문(1950년 상대입학)으로 6.25한국전쟁 때 통역장교로 근무하다 도미 유학했으며, 미국서 작가(영어)활동을 했다.

그런데 한국서 노벨위원회에 추천 의뢰한 한국작품의 평가심사는 번역서(영어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번역문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얼마큼 극복했는가?'가 첫째 관심사이고 이 문제가 한국인 당선자를 내지 못한 주된 원인 일 수 있을 것이다.

미 동포신문엔 유명한 한국문인의 영어 번역판에 대해 이따금 소개되지만 번역자의 지명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어 유감이다.

일찌기 필자는 '한국의 노벨문학상은 언제 가능한가?'(참조: 본지 2000년 11월호 칼럼)의 글에서 출판 번역문화의 혁신 없이 문학상 기대는 요원한 일이라 단정한 바 있는데, 10년 지난 지금엔 여건이 달라지기 바라는 바다.

그러지 않고선 우리의 노벨문학상은 미국서 작가활동하는 우리의 2세대(한국계 미국인)에서나 기대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더블딤 경기심세는 오고 있는가?

백 순(법대 62)

요즈음 더블딤 경제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얼마 전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1만대에서 9천대로 7.5% 하락하고 금년 4월 1만1천대까지 치솟았다 2개월만에 13.8% 폭락하는 금융투자 시장의 불마켓현상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경제계에는 더블딤 경제침체의 도래에 대해 반드시 온다고 하는 비관론과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의 논란대립이 팽배해 있다.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2가지다.

첫째는 2008년 경제대침체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의 근거는 3가지 하락현상이다. 집값/집판매고 하락과 소비자 신뢰도의 하락, 일자리 수의 하락 등이 그것이다.

경제회복 이후 근래 서서히 상승하고 있던 집값과 집판매가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다.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하락했고 새집 판매고가 4-5월 주택거품 폭발 이후 최고치인 33%나 폭락했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월평균 포어클로저(차압)가 30만 건에 달한다는 것이 대경제침체의 주범인 주택시장의 침체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여 준다.

국민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소비정도 측정 소비자 신뢰도가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Conference Board가 조사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5월 62.7(100기준)에서 6월 52.9로 한달 동안 무려 15.6%나 하락한 것은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 하는 소비가 신통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집값과 집판매나 소비자 신뢰도를 뒷받침해주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통계다.

6월 실업률이 9.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5월 새로 창출된 일자리 43만1천개는 주로 인구조사요원 채용에서 나온 것이며 사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겨우 4만1천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다.

둘째 주장은 21세기는 Global 경제로 미 경제 이외에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로경제와 중국경제가 지난 2년간 경제회복을 유도해왔던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Greece 국가부채 위기가 보여준 것과 같이 유로경제의 국가들이 줄줄이 GDP의 70%-100% 이상을 넘는 국가부채 도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2회 G20회의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G20국가들은 국가부채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에 주력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내핍(Financial Austerity)

정책을 G20국가들이 추진해야 할 것을 당면시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정치가들과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역설하고 있지만, 경제정책 이론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가부채 위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내핍 정책을 추구하면 그래도 담대한 국가경기 진작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경제공황을 면하고 지금까지 서행이나마 유지해 왔던 경제회복이 멈춰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경제공황중(공공)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공황을 심화시키고 다들레이션에 빠질 길을 열어주어 사실 자기실폐(자살)다"라고 역설한다.

중국경제는 아직까지 더블딤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버블 현상의 발생과 수출근거의 하락으로 성장에 축소될 것이라는 뉴욕 경제연구소의 보고가 최근 나온 바 있다.

이에 반해 낙관론자들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해 비관론자들은 다른 낙관적인 견해를 주장한다. 현재 미 경제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실업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래 산업생산과 소비가 서행이긴 하나 회복추세고, 과거의 경제침체 회복이 보여준 바와 같이 실업의 감소는 지체지표이므로 앞으로 1-2년 내에 원상적인 실업률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유로경제가 국가부채 위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로경제의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 바는 국가부채 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회사들이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과 유로화의 18%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대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의 은행들도 De-Leveraging 정책을 수행해 건실한 금융시장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더블딤보다는 국내수요 증대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지속적 경제성장을 얼마 동안은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관론과 낙관론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요즈음 중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후퇴론(Economic Growth Relapse)'이 대두되고 있다.

<필자 소개> 미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서울대 법대(62) 졸업, 오하이오대 경제학 석사(69), 웨스트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72). 테네시 계곡 개발청 경제학자(77-80), 테네시대 연구교수(80-86), 워싱턴대학 교수(87-91) 역임. 한미경제학회 부회장(88-90), 경제 연우회(87-90) 회장.

수상연도	출생지-국적	수상자	작품언어
2006	터키-터키	Orhan Pamuk	터키
2000	중국-프랑스	高行健	프랑스
1994	일본-일본	大江健三郎	일본
1968	일본-일본	川端康成	일본
1966	오스트리아-일본	Shmuel Agnon	히브리어-이디시
1913	인도-영국	R.Tagore	인도-영어

논단

제언·시

침몰하는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이영묵(공대 59)

며칠 전 한국의 모 일간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경제 등이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사회가 갈수록 보수 폐쇄화하고, 중국 공포증이 대단하다는 내용이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360km 떨어진 인구 160명의 낙도 아오가시마 주민에게는 1월부터 “외국인으로부터 점령당한다”며 외국인 참정권을 막는 보수단체의 ‘애국 캠페인’이 쇄도하는가 하면, 이 섬을 중국인들이 사들여 자치독립한 후, 중국과 결탁해 중국이 주일 미군을 봉쇄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인기리 출간되고 있었다. 또 어느 일간지에는 중국인들이 수원지가 있는 땅을 사들여 일본의 목을 죄면서 서서히 정복하니 하는 등 별별 가상 이야기가 실리며 꽤나 요란한 중국 공포의 기사가 판을 친다는 기사였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언젠가 지인과 대화 중 JAL AIR LINE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워싱턴 지점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공석이며, 많은 기업에서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바람에 꽤나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러면서 나의 이런 저런 생각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30년 동안의 미래학자들 인식 변화가 나의 관

심을 끌었다. 요즘이야 소위 미래학자들은 세계 패권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간다고들 떠들어 대고 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떠들어 대곤 했었다. 그리고 그 이유랄까, 그들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 몇 개는 아직도 나의 뇌리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우선 교육이다. 미국에서 매일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것이 회사원들의 해직 뉴스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소위 평생직장이니, 하면서 쉽게 해직도, 쉽게 이직도 없이 정년 퇴직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생을 보낸다고들 자랑했었다.

그 다음은 장인 정신과 가업이었다. 어느 초밥집에서 밥짓는데 3년, 야채 칼질에만 2년, 그 후 생선회 뜨는데 보조로 몇 년 지나 이제 초밥을 만들게 됐다고, 그리고 그것이 장인정신이라면서 자랑도 했다. 동경대를 졸업한 후 교시 패스 해서 화려한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오메집을 하고 있는데 그 오메집 오메국물이 200년 되는 가업이라고 자랑하는 듯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깃대를 쫓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 여행객에게서 보듯 그것이 사무라이 전통인지 깡패집단 야쿠자의 전통인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결집력은 정그러울 정도였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의 환율이 세계대전 직후 360엔대 1달러였다. 그들의 환율이 미국의 무역 역조개선 압력으로 절상될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뭉쳤다. 한 예로 소니 TV의 수출가격이 엔화 절상으로 얼마간 줄어들면 모든 부품업체들이 동참해 모두 가격을 낮춰주는 그들의 결집이 있었다. 그러기에 환율이 3.6배가 오른 100엔대 1달러까지 돼도 꼬떡없이 버티고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소위 ‘일본호’ 또는 ‘주식회사 일본’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덕목들이었다.

사실 당시 일본의 달려 보유액과 미국체매입은 다른 나라들의 추종을 불허했다. 뉴욕의 미국 자존심의 상징 팬햄(PAN AM) 빌딩을 비롯, 상업빌딩들과 하와이 별장들을 마구 사들이는 등 세계의 패권국이란 이미지가 엮여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듯 싶더니,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듯 했고, “아니 이거 정체가 아니냐” 싶더니 어느덧 나의 눈에는 일본이 침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나는 ‘소니가 삼성에 추월당했다니, 도요타가 불락해 보인다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야구·축구시합에서나 이번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아사다 마오 선수가 금메달 따기를 바라며 TV중계를 보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어딘가 활력을 잃은 난과하는 배를 보는 듯한 표정을 읽었다는 말이다.

일본이 왜 이리 되었을까. 나는 그들의 폐쇄된 극우 국수주의적 애국심과 그들이 지어낸 단어인 국민, 그리고 민족이란 것이 부메랑이 돼 오늘의 일본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믿는다.

그들의 극우 국수주의 이념은 그들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을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포장해서 사죄는 커녕 변명을 넘어 미화하고 있다.

북한에 전쟁 보상금으로 얼마 주고 북한을 그들의 시장 경제권하에 두어야 한다고 위협자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열명도 못되는 일본인 납치사건에 일본 국민의 피해 차원이란 족쇄에 묶여 북한정책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남경 대학살이나, 한국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모교 본부자리 되찾자”

윤재석(사대)
모교 동창회보 논설위원

대학로는 낭만의 거리로 정평이 나 있다. 연극, 뮤지컬 등 각종 공연과 미술 전시, 거리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활력이 넘친다. 특히 주말의 대학로는 그야말로 해방구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동남녀(老童男女) 구분없이 자유를 만끽하곤 한다.

하지만 대학로에 가면 아쉬운 심정이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대학로라는 이름의 원천인 예전 서울대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본부 자리는 1976년 문예진흥원이 입주한 후 후신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차지했고, 문리대와 운동장 자리는 재개발돼 각양각색의 건물로 채워져 있다. 미대 자리는 영동하게도 홍익대 디자인대학원 자리가 돼버렸다.

의대와 치대가 있는 연건캠퍼스가 건재하고, 법대 자리에 사범대 부설 초등학교와 부설 여중이 옮겨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마로니에 공원 안에 옛 서울대 축소 부조를 만들어놓은 건 그야말로 억지 추향적의 흔적 남기기다.

지난 달 서울대 본부 자리에 있던 문화예술위원회가 구로동으로 이전했다. 대신 그 자리는 예술인들을 위한 작업공간과 회의장 등을 갖춘 ‘예술가의 집’으로 용도를 바꿔 연내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모교와 동창회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

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몇 년 동안의 모교 원년 찾기 작업을 통해 서울대의 역사가 새롭게 정리됐다. 1895년 법관양성소 개교를 시원(始原)으로 올해 개교 115년을 맞도록 조정된 것이다. 광복 후 국립대로 통합 발족한 것을 개교 시점으로 채택해 스스로 ‘젊은 대학’을 자처했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유서 깊은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 못지 않게 옛 흔적을 보존하는 것도 한 소중하다. 대학본부는 1931년 건축가 박길룡 동문의 설계로 지어져 경성제대 본관으로 쓰였고, 광복 이듬해부터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대 본관으로 쓰였다.

대학본부는 국내안 반대 데모와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6·3사태, 10월 유신 등을 묵묵히 지켜본 현대사의 증인인 동시에 수다한 인재를 배출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본산이기도 했다. 그런 본부 건물이 마구잡이로 용도 변경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해야 하는가.

대학본부 자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학본부 환수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본부를 서울대의 역사성을 정리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문뿐 아니라 대학로를 찾는 이들에게 그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설화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저찌구 하기도 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 운운하면서 지방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들을 소위 ‘왕따’를 하기도 한다. 게다가 인력시장에 뛰어난 사람들을 타민족이니, 무엇이니, 하며 차별을 하지 않나, 하면서 말이다.

자동차 몇 백만대 팔면서 쇠고기 수입에 온갖 핑계대는 일본을 닮아가고, 세계의 강대국가라도 내 민족이니, 원자폭탄도 언젠가는 우리 민족의 것이니, 하기도 하지 않는가. 일본과 역사 교과서, 과거사, 역사인식, 독도 운운하면서 그 침몰하는 일본과 티격태격하며 한국 역사 방송이 되어 침몰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걱정된다.

로마가 타민족을 포용하는 영광의 시대에서 자기끼리 번영 속에 안주하면서 침몰한 것은 세계 역사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 방송이 안에서 뛰쳐나와 세계화만이 밝은 미래의 정당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해외에 살며 침방이 된 우리 동포들의 사명이라면 내가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닌지?

송춘송시(送春頌詩)

봄은 떠나간다
김태환(법대 46)

봄은
오래 머물러달라 해도
가는 길 바쁘다고

봄은
여름이 기다린다 해서
더 머물러 있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려
반갑게 맞이한 봄

잠시 머물로 꽃만 피우고
정두고 떠나간다

계절을 여름에 전하고
서둘러 떠나간다

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여인의
계절

건울, 열매만 잉태해놓고
바람과 함께 떠나간다



논단

수필(졸업반지)·시평

‘빈마음에평화가온다’는 잔리
평상심은 ‘구부득고’의 분노도 치유



박취서(약대 60)

사주팔자에 천문성이 들어서인지 평생 3곳의 대학을 전전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 노력하다 결국 석사 학위를 끝으로 남가주에 정착해서 살아온 지 40여년이 돼가고 있다.

작년 말 인디애나주 Purdue대학 졸업당시 갖고 싶던 기념반지를 뒤늦게 주문했다. 졸업 후 Perdue대 동창회보에는 뒤늦게나마 기념반지를 주문하는 동문을 위해 Balfour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그래서 1천30달러를 투자해 ‘Perdue University’ 로고가 새겨진 졸업반지를 주문했다. 4주만에 배달됐다.

그러나 표면의 한 부분에 흠이 패어 있는 보기 흉한 미완성 작품이었다. 반지 제작회사에 전화했더니 흠집 부분을 확인해본 뒤 다시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Federal Express 대행업체인 어느 Mailbox Shop에 부탁해 반지를 발송했다.

텍사스주 휴스턴 Balfour사에 반송 후 4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았더니 자기들은 FedEx로부터 내가 보낸 반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Mailbox Shop에 확인해보았더니 바로 그 날 FedEx직원이 반지를 Pick Up했다면서 Truck Number를 주며 FedEx에 Claim하고 e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분실경위를 작성해 FedEx본사에 1천30달러 전액보상을 요구하는 Claim처리를 했다.

그러나 수주일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전화했더니 내가 Fax로 보낸 Claim은 받았으면서 극히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담당 직원은 내가 Mailbox Shop에서 반송할 때 Item의 Value를 Declare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보상은 안되고 이런 경우 회사정책에 의해 100달러만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면서 100달러의 체크를 보내왔다.

1천30달러짜리 반지가 100달러만 보상받게 된 것이다. 이상대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시 Balfour사에 자초지종을 얘기해보았더니 다행스럽게도 Perdue대에서는 졸업반지를 주문했을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플랜이 있어 분실 반지를 Recover해준다고 했다. 사유를 자세히 적어 보낸 후 한 달만에 새 반지가 배달됐다. 이 일에 지루하게도 거의 반년을 소비했다.

내 성정에 1천30달러 짜리 반지를 100달러만 주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애초 Defect된 반지를 반송할 때 Mailbox Shop직원이 Item의 Value와 Insurance Plan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오기, 잘 안되면 변호사를 사서라도 Mailbox Shop이나 FedEx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반격 심리 등이 범벅이 돼 화가 잔뜩 나 있었던 나날들이었다.

젊은 시절 꿈꾸던 학위를 끝

내지 못한 데 대한 화풀이를 반지라는 상징물로 대체하려 했던 나의 보상심리, 그러다 그 보상심리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 Defect 반지가 배달됐을 때의 분노, 반지를 다시 반송했으나 분실됐다고 했을 때의 허탈감, 다시 전화, Claim Form 작성, Fax보내고 편지쓰는 등의 번거로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가지고 싶어 하던 반지를 온전한 상태로 다시 반개는 됐으나 지금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그 참된 동기가 무엇이든 세 곳의 대학을 졸업했으니 적어도 졸업반지 하나는 가져야겠다고 하는 욕망과 집착에서 출발해 결국은 뜻대로 성취는 됐지만 지금 반지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원래 시계 이외에는 몸에 무엇을 지니고 다니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결혼선물로 받았던 금반지, 직장에서 15년,

20년, 25년 됐을 때와 은퇴할 때 받은 기념반지 등이 여러 개 있으나 한 번도 끼고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졸업반지를 주문하면서 새삼스레 손가락에 끼고 다니겠다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물론 아니었을 터니 학위를 끝내지 못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 금반지에 대한 조금의 몰욕, 그리고 반지를 끼고 으스스해보려는 과시욕과 속물근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하면서 집착해 온 것은 아니었을까.

금반지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소유집착,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구부득고(求不得苦) 분노와 괴로움, 이러한 고통을 통해 물건을 손에 넣기는 했으나 그 순간의 기쁨이 지난 다음 남아 있는 감정은 과연 무엇인가.

그 반지 소유욕망이 일기 전의 고요한 평상심(平常心)이

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은 그 평상심이 욕망이라는 돌팔매에 의해 고요한 호수의 수면에 때아닌 파도가 일듯 나를 분노와 집착의 소용돌이로 휘몰아갔던 나날들이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재물이건, 명예건 무엇이든 집착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괴로움이 뒤따르게 돼 있다.

이는 인생살이의 변함없는 손익계산서요, 대차대조표다.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원초부터 그 괴로움의 인과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면서 욕심없이 살아간다고 자위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반지 사건을 통해 빈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하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다.

이에인의 신앙과 시

이연행(문리 68)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인 이에인이 올해 벌써 65세가 됐다. 그녀는 오랜 투병(2008년 암 수술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불굴의 애착과 기쁨을, 지난 1월 출판된 ‘희망은 깨어 있네’에서 신작 시와 그간 단상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거기, 그녀의 100편의 시에서 그처럼 힘겨운 시기를 거쳐 ‘고통의 학교에서 새롭게 수련을 받고 나온 학생’으로서 그녀가 발견한 인생에 대한 감사와 환희를 더욱 섬세해지고 깊어진 정서와 여전히 맑은 감성의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내가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어떤 결심)고 하며, 작고 소박한 모든 것들의 소중함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삶 자체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그녀가 암 선고 받기 직전 탈고한 열 번째 시집 ‘엄마(2008)’는 어머니의 사망 1주기에 집필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1976년의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 개정판이, 34년 동안 수없이 인쇄되고 베스트 셀러로 팔린 후, 다시 출간됐다. 그녀는 지금도 광안리 바닷가 수녀원에서 투병을 계속하며 1997년 마련된 ‘해인 글방’을 운영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수많은 독자들의 감격 어린 편지에 답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작가, 종교인, 서신으로 많은 고난을 알려오는 수감자들과 환우들과도 계속 글과 그림으로 교류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병에 대해 근심과 격려를 보내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책들을 읽고 언제나와 같이 끊임없는 용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 나온 ‘희망은 깨어 있네’에서는 여섯 장에 걸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고독, 고민, 고통, 한계, 그리고 무한한 결핍을 통해 그녀가 깨달은 인생과 하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희망에 넘치는 문체로 고백했다. 이 여섯 장은 ‘희망은 깨어 있네’, ‘병상 일기’, ‘계절 편지’, ‘채우고 싶은 것들’, ‘언제나 그리움’, ‘시를 꽃피운 생각들’이며, 그 뒤에는 얼마 전 갑자기 작고한 친구 장영희와 김점선에게 바치는 시와 산문,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을 보내며 쓴 ‘봉헌 기도’가 실려 있다.

그녀는 “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움직이는 사랑의 집/ 선물들의 집이 될거야(행복수첩)”라고 하며 언제나 그녀의 작품으로 만민에게 봉사하는 시인의 천직을 여전히 밝혔고, 그래서 “삶 자체에 시를 쓰는 느낌으로 산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저자의 애정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세밀한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녀의 생활에서 일하는 부활의 긍정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1976)는 저자가 수녀가 된 지 12년만에 종신 서원을 한 기념으로 그동안 혼자 써서 간직해 온 시들을 다른 수녀들과 시인 홍윤숙 씨등 선배 작가들의 추천으로 발간한 것이다.

그 서문은 바두진 선생이 썼다. 거기에는 ‘민들레의 영토’, ‘부르심’, ‘큰 소리로 말쑥치 않으셔도’의 세 부에 걸쳐, ‘민들레의 영토’, ‘바다여 당신은’, ‘어느 수채화’, ‘장미의 기도’, ‘해바라기 연가’, ‘고운 말’, ‘단순하게 사는 법’, ‘소화테레사 성녀에게’, ‘부활의 아침’ 등 신앙과 서정성을 조화시킨 시들이 수록됐다.

그녀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특히 연인을 기다리듯 보고 싶어하는 하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인간적으로 나타냈다.

그녀는 기도와 시를 통해 하늘님을 찬양하고, 이 시들을 제물과 꽃필기로 바쳤다.

“아름다움의 시작은 단순함임을/ 예수님께 다시 배우는/ 오늘의 기쁨이여”(‘단순하게 사는 법’)라고 하며, 역시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꽃아 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민들레의 영토’)이라고 했다.

그녀는 항상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의식해 “고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고운 말’)라고 말했고, 나중에도,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있게 버려서 더욱 빛나는 한 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라고 스스로 기원했다.

그녀는 시를 쓸 때 지극히 쉽고 단순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독자들이 그것을 읽으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도록 애썼다. 그리고 거기에서 과도한 종교적 색채를 절제해 일반 독자들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아서 깊이 감동하게 했다. 또 그래서 그녀의 문학과 종교는 항상 동일한 선상에서 의미가 깊고 중요한 것이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언니 오빠가 낭송하는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의 시들을 듣고 우리 말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에 눈 뿜고,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문예반에서 시들을 써서 지도 교사들의 칭찬을 받고, 장래 시인이 되기로 마음 먹게 됐다.

그녀는 “시는 저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하나의 놀이고 노래였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그리고 일찌기 갈릴 수도원에 들어가 언니의 영향으로, 여고 졸업후 곧 수녀로 입회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이미 “저에게 시는 하나의 기도로 다가옵니다”라고 술회했다. 또 “신을 위한 나의 기도가 그대로 한 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숨쉬는 나의 매일이 읽을수록 맞드는 한 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원했다.

그녀는 첫 시집을 낸 이후, 계속해서 80년대에 모두 베스트 셀러가 된 ‘내 혼에 불을 놓아(1979)’, ‘오늘은 내가 낫달로 떠도(1979)’, ‘시간의 얼굴(1989)’을 발표했다.

또 그후에도 ‘외딴 마을의 빈 집이 되고 싶다(1999)’, ‘다른 웃은 입을 수가 없네(2002)’, ‘작은위로(2008)’, ‘작은 기쁨(2008)’ 등의 시집과 산문집(두레박, 꽃삽 등), 시선집(사계절의 기도 등), 번역서(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등), 동시집을 출판했고, 최근에는 그 시들을 실은 음반과 카세트 그리고 CD가 나왔다. 그녀의 시들은 각급 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또 노래로도 작곡됐다.

그녀는 ‘수녀’라는 특수한 종교적 신분을 뛰어 넘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진실의 차원에서 인간과 인생의 전부를 시로 바치고 있어서, 모든 종교의 한계를 초월해 모든 독자가 그 영원한 가치에 의해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 무기교의 담백함, 맑고 투명한 감수성, 거짓 없는 순수함이 그녀의 열화 같은 사랑과 조화되어, 언제나 신선한 충격으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운다.

그녀는 “수녀된 안에 있어도 날개 달린 천사로 희망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구나”라며, 어떤 정치 사상이나 저항 운동보다 더 설득력 있는 진리의 차원으로 그녀의 독자적인 문학 노선을 지켜오고 있다.

또 “시가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하는 숨은 힘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고, 종교적이고 소망적인 시로 지금까지 열정적인 창작력의 놀라운 다작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고 계속해서 시와 산문 그리고 많은 서간을 집필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시대에 하늘이 내린 천부적 시인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

기고

6.25 한국전쟁 회상기

6.25한국전쟁 60주년과 나

이중희(공대 50, CA)

▶북한군의 남침=1950년 6월 25일, 한국군이 창설된지 불과 3년도 채 안됐고 일요일이라 모든 군인들은 휴가 아니면 외출을 나갔다.

선전포고도 없이 광화문 상공에 나타난 인민군 비행기는 광화문 종로, 을지로를 누비며 죄없는 국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다. 따 따 따...하는 기관총 소리, 인민군 공습에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술했다. 그런데도 인민군의 남침이 아니고 한국군의 북침이라 우기는 교국의 일부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당시 광화문 네거리에는 땅콩바나나, 봉어빵 같은 것을 파는 리어카 장사가 많았다. 나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은 바나나니, 땅콩이니 하는 것들은 부자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기에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며 바나나의 맛은 어떨까,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나나는 팔리지 않아 길이 꺼렇게 변색됐지만 주인도 아까와 못먹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인민군의 공습으로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광화문 네거리 리어카 장사들의 좌판이 넘어가고 공습을 피하느라 길바닥에 눈을 감고 엎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

나도 바닥에 무싹고 엎드렸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앞에 꺼렇게 변색된 바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양심도 염치도 없이 그 바나나를 꺾질도 못벗기고 입에 넣고 삼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난한 리어카 장사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불쌍하고 가난한 리어카 장사들의 심정은 그 때 어땠을까.

6.25가 터졌을 때 나는 18세였다. 교고를 딱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공대에서 수업이 시작되자 3주 후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인민군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무조건 죽인다는 소문 때문에 서인지 나는 가정교사 집을 나와 부모 형제들이 사는 집에 뛰어가 보니 집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었다. 모두 어딘가에 가서 숨은 것이었다.

어렵게 입학한 서울대인데 인민군 통치하에서 서울대는 어찌될 것인가. 동승동 대학본부까지 뛰다시피 달려가보니 인민군 탱크와 인민군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길 건너 의과대학 건물도 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으며 인민군 부상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라디오에선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 담화가 들렸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적을 격퇴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각자의 직장에 충실하십시오..."

나는 부모형제 걱정을 하며 길을 건다가 인민군 병사에게 불

들려 풍문여고에 끌려 갔다. 거기는 의용군으로 잡아 온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이를 후 풍문여고를 떠나 낮에는 나무 밑에서 자고 밤이면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곤 했다. 한강 남쪽엔 가본 일도 없었던 나는 도망칠 궁리만 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나는 어둠을 틈타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수소문 끝에 형이 숨어 살던 경전(지금의 한전)합속소 지하실에 숨어 있다 나중에는 작은 누이와 같이 육인동 먼 친척 집에 숨어 살다 9.28 수복을 맞게 됐다. 생명의 위협에 굶주리며 살던 3개월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9.28 수복을 맞게 된 것이다.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16개국에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미국에서만 4만5천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수복이 되자 경찰들이 죄없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끌고 가 6.25때 피난을 안간 빨갱이라고 하며 마구 두들겨 패 문교부의 교위직에 계시던 큰아버지는 1.4후퇴 때 대구에 가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한참 후 그 여파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피난 못간 것이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죄는 아니었다. 서울에서 피난을 가려던 하나 밖에 없던 한강다리를 건너야 했는 데 다리는 이미 폭파돼 피난이란 생각조차 할 수없는 상태였다.

UN군과 한국군은 계속 압록강까지 북진에 성공했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공군은 어쩌나 가난했던지 군인 100명에 소총 한 자루씩이었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민가에 들어가 약탈하며 남하했다.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 그들을 폭격하려 했으나 트루만 대통령의 반대로 실패했다.

1.4후퇴 때 우리 가족은 그 무서운 겨울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의 걸어서 갔다. 누나는 생후 2개월의 아이를 업고 걷다 보니 어린 것이 얼어 죽어 그냥 길에 버렸다.

나는 배고픔을 참으며 형을 따라 부산 범어사에 들어갔다. 거기는 국민 방위군이 있었는데 밥을 먹여준다는 방위군에 들어갔다. 그 때는 너무 배가 고파 밥만 먹여준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2개월 후 다시 대구로 왔다.

대구 칠성방직이라는 곳에 일선으로 가는 미군들이 하루 쉬고 가는 곳인 것을 알고 찾아갔다. 영어를 할 줄 안다니까 미군은 신기하다는 듯 나를 통역으로 채용하고 부산에서 뽑은 한국인 사병(카추샤)과 노무자들 통역일을 맡겼다.

최전방에 가니 하루에도 죽어가는 미군이 수십-수백명씩 됐다. 전쟁터라 내게도 무장을 시키고 미군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며 나를 '루테넌트' 라고 불렀다. 등록된 정식 중위는 아니고 한국인들을 다루기 위

해 임시로 준 계급이었다. 그곳이 미 제7사단 31연대였다. 처음엔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무섭고 떨리더니 나중에는 아무 것도 아닌 듯 마구 연발로 적을 죽이기도 했다.

전쟁 중에는 야간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암호가 하달됐다. 그 중 지금도 기억에 남은 것은 어둠 속에서 내가 먼저 "Rolling!" 하면 상대방이 "Stone" 하면 아군이고 아니면 즉시 사격을 하곤 했다.

나는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었다. 미군과 함께 적과 싸우며 4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대구로 갔다. 마침 한국군에서 포병장교를 모집한 다기에 들어가 6개월간 간보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육군 포병 소위가 됐다. 보병장교 교육은 갑종 간부 19기였고 포병장교 과정은 포병장교 23기였다.

▶제10 포병대의 피나는 전투=전쟁이 격화돼 한국군과 미군이 무더기로 죽어갈 때라 소위로 임관 후 하루의 휴가도 없이 최전방에 실려갔다.

수도사단 제10 야전 포병대의 최전방 관측장교로 간 곳은 인민군과 불과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매일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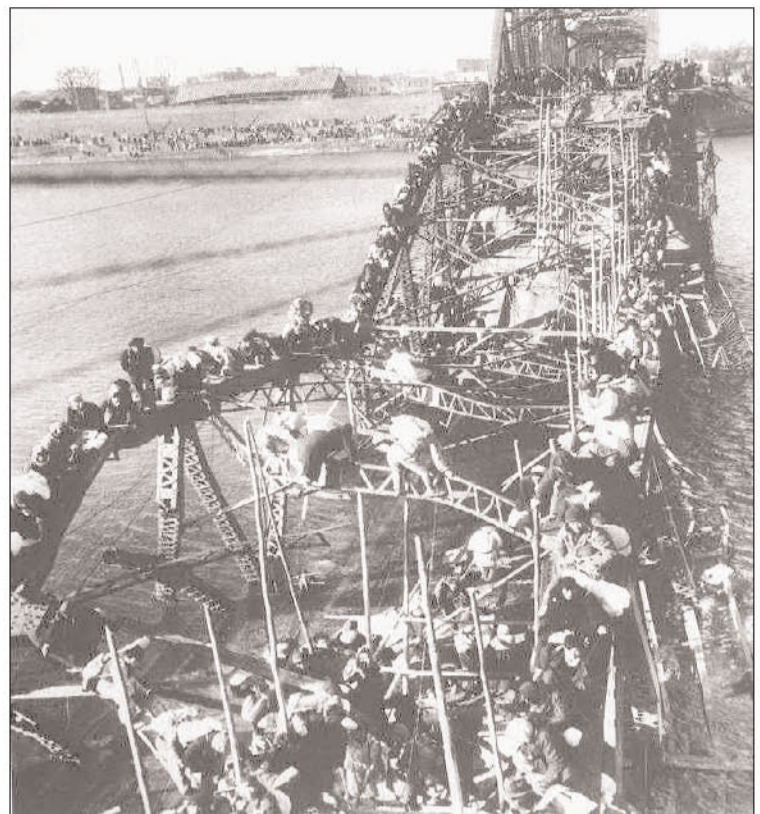
"대대 10발!" 하는 내 사격 명령에 따라 105밀리 아군 포가 180발의 포탄을 적진에 퍼붓곤 했다. 쌍안경 속의 적을 죽이기 위해 "좌로 20, 더하기 100, 대대 10발!"을 10번만 반복하면 1천800발의 포탄이 적진을 용단폭격했다.

큰 나무가 우거진 산 속에서 하룻밤만 적과 포격을 해도 그 산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곤 했다. 전화기와 무선기도 파괴되고 나면 남은 것은 펜츠가 보이는 찢어지고 피투성이의 군복과 총알에 구멍난 철모, 몇 발의 총알과 몇 개의 수류탄이 가슴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주먹밥이나 배달이 안되면 아무 것이나 뜯어먹곤 했다.

적탄에 맞아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전우를 볼 때, 같이 고생하던 부하가 죽고 혼자 남았을 때는 나도 죽으려고 밧발치는 적탄 앞에 철모를 벗어두고 "나도 죽어라!"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서 있어보기도 했다. 미군의 공습 때문에 적은 낮에는 조용하고 밤이면 공격해오곤 했다. 달 밝은 날은 철모가 반사돼 목표물이 될까봐 흙에 오줌섞어 바르기도 했다.

▶포위돼 전멸, 의정부로 도망=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금화라고 하는 산 속에 있었던 어느 날 우리는 적에게 완전 포위돼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 그 때 내가 있던 참호 속에는 보병 중대장 권 대위와 연락병 그리고 나와 관측병 권 하사가 있었다.

적의 포탄이 우리 참호를 부수고 터졌다. 권 대위와 그의 연락병은 즉사하고 권 하사는 어딘가 맞아 피를 흘리며 나를 향해 "이 소위님, 나 좀..." 하면서 신음했다. 참호 밖에서는 이북 말을 쓰는 적군의 소리가



1950년 6월28일 한강 철교가 폭파돼 수많은 피난민들이 수장됐다.

들렸다. 얼마후 조용해진 것으로 보아 아군은 완전 전멸한 것 같았다.

시체들 속에 섞여 죽은 척 하며 도망칠 궁리를 했다. 짙은 먼지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권 하사를 두고 포복을 하기 시작해 그 사경을 빠져나왔다. 나도 파편을 맞은 탓인지 온 몸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일어나 남쪽으로 마구 달리다 어느 골짜기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와 같은 부대의 홍 소위가 다리에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야, 중희야..." 하고는 눈을 감았다. 죽어가는 권 하사를 참호 속에 그 냥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권총 벨트를 그의 어깨에 걸치고는 사력을 다해 끌고 갔다. 얼마 가다보니 먼지 자욱한 신작로에 후퇴 아군 차량을 정리하던 현병이 보였다. 나는 "어이, 현병..." 하고 소리치

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기서 한 가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내 상처를 정성껏 간호해준 간호장교 정은아 소위였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집주소를 교환한 뒤 헤어졌으나 그 뒤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다행이 큰 부상이 없어 의정부에서 재편성하는 우리 부대로 다시 들어갔다. 그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을 위로하러 왔다. 나는 그 때 권 하사를 그냥 두고 나 혼자 도망친 것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권 하사의 생사는 그 뒤 어떻게 됐을까.

▶1953년 7월 휴전=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의 중공군 폭격을 반대한 결과 UN군과 한국군은 현재의 38도선까지 밀려 왔다. 그리곤 휴전을 한 것이다.

만일 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의 중국 폭격을 허가했다 라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을 보았을 것이다.

휴전이 되자 나에게 '충무무공 훈장'이 내려졌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현명하고 유능한 대통령은 역사를 공부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반면 어리석고 무능한 대통령은 파벌을 조성하고 경협을 통해서 배운다. 즉 무능한 대통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교훈삼아 남기고 싶은 말=휴전이 되자 나는 곧 모교 공대 1학년에 복학했다.

돌이켜 보면 그 무서운 전쟁 중 최전방에 나가 싸운 사람들은 거의 백 없는 보병과 포병의 사병과 하급 장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고교생 및 대학생들이 많았지만 영관급 장교와 장성급들 중 총 한방 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적과 대치한 적도 없었고 적을 구경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하급 장교들이 휴전후 복학하기 위해 제대할 때 정부에서 준 퇴직금이란 광복 한 마, 또는 군복 천 한 마씩 받았다. 전쟁 중 월급이랬자 치약과 칫솔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육군 소위들은 10명 중 9명은 전사해 '소모품 소위'라고 불렀다.

전쟁 중에도 후방에서는 병역 기피자들이 우글거렸는데 나는 바보였는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나고 복학해 남보다 3년 늦게 졸업후 첫번째 직장이 '한국 조폐공사'였는 데 거기에서 나를 병역 기피자로 몰아 파면시켰으니 말이다.

왜냐면 그 때 조폐공사는 병역 기피자들의 소굴이었고 입바른 말을 잘 했던 나는 그것을 불평한 죄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기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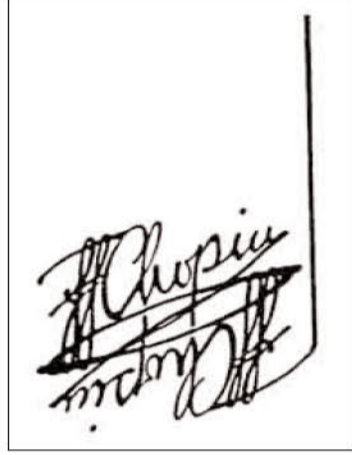
Music Column

내가 좋아하는 쇼팽의 작품들

정공수(하를랜드 동창회 차기회장 구명순 동문 부군)

눈을 감고 어루만지듯 가슴에 차분히 내려 앉는 부드러움과 깃가볼 뎀도는 'Sonority(울림, 공명)' . 그렇다.

쇼팽 (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3.1일 ~ 1849.10.17)의 음악은 한 마디로 그 매력적으로 꿈틀거리는 선율의 Sonority 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Grande Polonaise Brillante Op.22 'Andante Spianato'

화려한 테플로네이즈 작품 22는 사실 두 곡을 따로 작곡해 합성한 곡이다.

폴로네이즈 부분은 쇼팽이 그의 조국 폴란드를 떠나기 직전인 1830년 9월 시작해 1831년 7월 비엔나에서 완성했으며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곡이었다.

도입부로 첨가된 피아노 솔로를 위한 'Andante Spianato'는 1834년 작곡한 것이다.

1835년 4월 파리 콩세바르와 르 관현악단의 반주로 초연됐는데 그 후에는 관현악과 협연한 기록이 없고 관현악 부분은 삭제됐다.

필자가 'Andante Spianato' 만을 따로 떼어내 소개하는 것은 이 폴로네이즈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이 아름다운 'Andante Spianato' 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Spianato' 는 이탈리아어로 '부드럽게, 평안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이 곡의

1849년 쇼팽이 사망하기 직전 남긴 유일한 사진이다. 그는 생존 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오른쪽은 그의 전필 사진.

서주의 4마디와 그 후 G장조의 주선율(악보 1)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주고 있다.

고요하고 투명한 호편을 미끄러져 가는 작은 배처럼 가끔은 가볍게 흔들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비경처럼 주선율이 전개되고 발전한다.

그래서 마치 호수에 내려와 앉은 섬 그림자를 가르는 청량한 물방울을 계속 튀겨내는 뱃머리가 됐다가 잠시 쉬어가듯 느리고 새로운 선율(악보 2)로 변화한다.

꿈 길로 회상하는 제1부의 선율이 스쳐가며 재현되고 조용히 선착장에 접안하는 듯이 Coda(중결부)에 이른다.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러나 웬지 지나는 뱃길을 뒤돌아아보고 싶은 아쉬움과 쓸쓸함이 남는 이 곡의 느낌을 숨길 수가 없다.

이것도 또 하나의 'Sonority' 일 것이지?

Nocturn(아상곡) No.1 in B Flat Minor Op. 9-1

'Nocturn' 의 어원은 라틴어의 'Nox' 에서 파생된 것이며 로마시대에는 '밤의 신' 이라는 뜻에서 사용됐다.

영국의 John Field 가 Nocturn이란 형식을 창시한 작곡가다. 음악적 기원과 그 명칭은 가톨릭 교회의 기도 종류 중에서 '밤의 기도' 를 염두에 두었음이 틀림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형식은 가톨릭 성가와 관계없고 형식과 악풍은 독창적이었다.

화성적인 반주 위에 우아하게 수놓아 가는 선율이 꿈을 꾸듯 아름답고 밤의 적막과 고요가 적절하게 표현돼 있다.

쇼팽은 그의 생애 동안 21곡의 Nocturn을 작곡했고 2곡 3곡씩 모아 생전에 18곡을 발표했다.

Field의 Nocturn 형식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박하고 복가적이며 들꽃같이 향

기 적은 Field의 Nocturn과는 달리 쇼팽의 Nocturn은 보다 장식적이며 그 열정과 선율의 향기가 짙고 이색적이다.

작품의 내용면에서 Field의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Op.9-1은 대단히 서정적이며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일을 입 안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듯이 넘기는 아쉬움이 있고 황홀한 꿈처럼 주체할 수 없는 무아의 포만감이 있다.

곡의 구성은 라르게토 6/4박자 3부 형식으로 중간에 장조의 선율(악보 1b)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Nocturn No. 20 C Sharp Minor Op. Posth

1830년 작곡된 이 곡은 2개의 초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작곡자의 누나인 루드비카에게 'F단조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의 연습을 위해서' 라는 서신과 함께 보내졌고 다른 하나의 자필 초고는 제2 협주곡 F단조에서 빌린 선율이 사용되고 3/4박자며 그 반주는 4/4박자로 돼 있다.(악보 20a).

참으로 경이로운 조화다. 사후 그의 유고 중에서 발견됐으나 루드비카에게 보낸 초고와는 다르다. 루드비카의 것은

연주의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리듬을 희생시켜 4/4박자로 통일해 개작했고 현재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쇼팽의 사후 20년이 지난 1875년 라이트 게벨이 'Adagio' 라는 표제를 붙여 출판했으며 속도 기호는 'Lento con gran espressione(느리게, 풍부한 표정으로)' 라고 덧붙여 있다. 이 속도 기호만 덧붙여 있는 이 곡을 후세 사람들은 Nocturn과 그 형식과 꾸밈이 흡사해 Nocturn에 유작으로 배열했다.

이 곡의 화성과 선율의 아름다움은 심오하고 섬세한 감성이 뛰어나다.

독일 태생의 스위스의 사상가이며 작가인 헤르만 헷세는 이곳을 "타오르는 동경의 언어" 라고 극찬했다.

그가 '데미안' 의 저자라는 것은 모두 알지만 그가 수준급의 Violinist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Violin곡으로도 편곡돼 널리 연주되고 있으며 영화 'Pianist' 에 삽입곡으로도 사용됐다.

*이 글은 하를랜드 지부 동창회보 2010년 제3호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이다.

Chopin's mansion in Żelazowa Wola, Poland. 사진= Wojsyl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6월호' 를 읽고

본 동창회보는 지난 6월호에 '6.25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특집' 으로 김세중(공대 50) 동문의 글 '6.25 당시 포로 경험담(달주 중 잡혀 총살 위기 겪어)' 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글을 읽은 독자 중 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이 분은 서울대 동문은 아니지만 김 동문의 글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분의 글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2010년 6월호에서 김세중님의 6.25특집 Story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해 살아남은 일, 또 그후 미국 Oklahoma Fort Sill에 있는 포병학교에 유학한 일... 후세에게 이 피비린내 났던 일을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 중 미 2사단 Combat Engineer C & D

Co에서 일하다 1951년 West Point 출신 중대장님, 그리고 많은 미군들의 도움으로 휴전 후 Chicago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 중 당시 우리 중대의 미군 가운데 30%는 희생됐습니다. 중대장님은 지뢰 설치 중 중공군에게 사로잡혀 갈갈이 찢겨 죽었으니까요.

너무 장하고 Lucky하십니다. 건강히,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사의 기로에서 용기를 내시고 탈출하신 그 지혜와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나시면 꼭 저의 사무실에 놀러오십시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준석 드림
(847) 676-2327, (847) 271-3034 서준석 회계 사무소
4433 W. Touhy # 205
Lincolnwood IL. 60712

<1면에서 계속>

이와 함께 발전기금은 현금을 포함해 부동산, 주식, 현물, 유증(遺贈) 등 다양한 기부 방식을 개발하면서 보다 수월한 기부를 위해 개인에게 맞춘 기부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 펀드레이저, 새무사, 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단을 구성해 기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률문제 등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부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개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오른쪽 위 그래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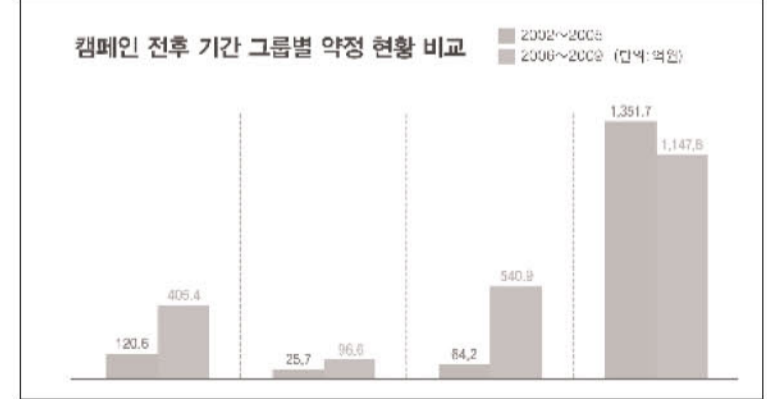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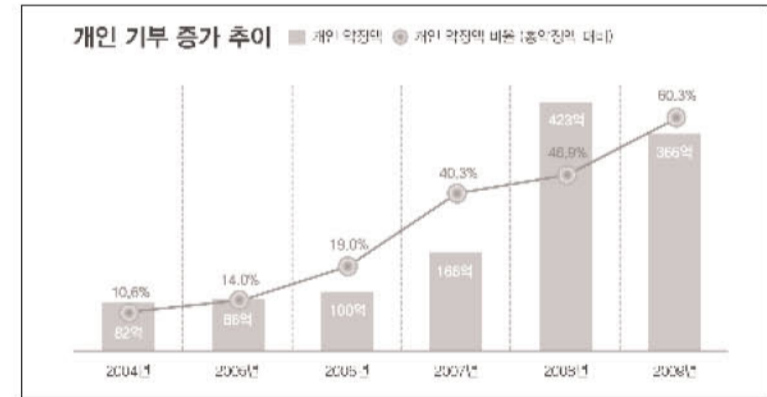
또한 기부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 예우 프로그램도 새로 정비했다.

이렇듯 서울대는 해외 명문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 'VISION 2025 캠페인' 을 통해 모금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여기에 다양한 기부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했다. 나아가 기업의 거액 기부의

존도가 컸던 대학 모금을 질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프 아래 쪽 참조>.



서울대병원 LA오피스 미주 동포 건강 세미나

감마나이프로 첨단 무혈 뇌질환 수술

파킨슨병도 뇌심부 자극술로 탁월한 치료효과

모교 서울대병원 LA Office가 지난 6월 LA 모교 미주센터에서 '미주 한인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초빙돼 '무혈 뇌수술의 실현 감마나이프', '파킨슨 질환에서의 뇌심부 자극술'에 대해 강의를 실시, 대성황을 이뤘다. 이를 요약해 게재한다.

뇌질환 무혈수술

감마나이프 수술은 두개골을 절개하는 기존 수술방법이 아닌 강한 에너지의 감마선으로 각종 뇌 질환을 치료하는 최첨단 치료법이다.

코발트방사선 물질(Co60)에서 방출되는 감마선(Gamma Ray)을 환부에 조사해 정상 뇌조직은 파괴하지 않고, 환부에만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투사해 종래의 방사선 치료와도 다른 수술법이다.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뿐더러 종래의 수술기법에 따르던 위험성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감마나이프 수술의 대표적 뇌질환은 정신경동맥, 뇌수막종, 뇌수체종양, 두개인두종처럼 뇌에서 발생하는 뇌종양과 폐암, 위암, 유방암 등에서 머리로 전이되는 전이성 뇌종양 등이 있으며 뇌동정맥기형, 해면상 혈관종과 같은 혈관기형 및 3차신경통과 같은 질환 등이 있다.

특히 고혈압 등으로 수술 위험도가 높거나 뇌 위험부위 수술이 어려운 경우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변 주위 정상조직에 투사되는 방사선 양 제한을 위해 병소의 크기는 3-4cm 이하가 적당하다.

수술은 1박 2일이면 모든 과정이 끝나 수술 당일 퇴원할 수 있다.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대개 수술 하루 전 입원해 저녁식사 후 머리를 속삭삼푸로 감고 취침한다. 수술 당일 국소마취 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뇌혈관 촬영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다.

뇌촬영 검사후 최첨단 치료계획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 적절한 감마선의 양과 분포로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시 환자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으며 마이크와 비디오를 통해 의료진과 의사 소통도 할 수 있다. 수술 후 머리에 고정했던 틀을 풀고 바로 퇴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감마 나이프 센터가 15개 대학병원에서 운영중이나 특히 서울대 병원 감마나이프 센터는 2006년 세계 감마나이프 학회를 주최, 2009년에는 아시아 방사선수술 학

회 뿐 아니라, 세계 방사선수술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서울대 병원 감마 나이프 센터는 개소 10년만인 지난 해 2008년 3월 수술 3천례를 달성했다. 또한 최신모델인 감마나이프 PERFEXION 을 국내 최초로 지난 2008년 10월 도입, 정교한 수술을 요하는 뇌질환 치료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시신경이나 뇌간과 같이 중요하면서도 방사선에 약한 위험부위를 피해 보다 안전한 수술을 하고 있다. 이 기기로 연간 감마나이프 수술 600례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SCI동계 해외 유명 학회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내고 있어 세계 유수의 감마나이프 센터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치료 센터다.

서울대 병원의 감마 나이프 수술팀은 신경외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핵의학과 및 의공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개소한 서울대 병원 LA office를 통해 이미 많은 동포들이 서울대 병원 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LA office의 진료 연계를 확대해 감마 나이프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지난 2월 서울대 병원 LA office를 통해 LA 거주 동포 한 분이 서울대 병원 감마나이프 센터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어려운 우측 시신경 주변부위에 발생한 뇌수막종으로 시신경 보호를 위해 PERFEXION을 이용해 3일에 걸쳐 분할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아 현재 LA office를 통해 경과 관찰중이다.

서울대 병원 LA office에서는 앞으로도 환자에게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적 치료 안내 및 진료 예약을 더욱 확대해 단순한 건강검진 예약에서 한 차원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들의 질병 예방 및 퇴치에 앞장설 것이다.

파킨슨 병 치료 효과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이다.

파킨슨 병은 중뇌에 위치한 흑질이라는 특정부위에서 운동에 꼭 필요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파괴되는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걸릴 위험은 점점 커져 발생빈도는 인구 1천명 당 1명 내지 2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60세 이상 노령층에서는 약 1%, 65

세 이상에서는 약 2% 정도가 병을 앓고 있다.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므로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몸 움직임이 느려지고, 손발이 떨리며 몸이 뻣뻣해지는 3가지의 특징적 증상이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막연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를테면 계속되는 피곤, 무기력, 팔다리의 불편증세,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도 있고 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며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먼저 느낄 수도 있다. 그밖에 목 뒷부분이나 허리 통증 등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거나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경우도 있다. 빠른 경우 40대부터 대부분의 경우는 50-60대부터 이러한 초기 증상이 발생하므로 노화와는 구별된다.

파킨슨병 진단은 전문의의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밖에 뇌질환 진단에 많이 이용되는 MRI나 CT등의 검사는 대부분 보조적 수단으로 파킨슨병 자체 진단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파킨슨 병의 임상증세로 떨림, 근육의 강직, 몸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장애 등이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초기 여러가지 막연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기가 어렵다. 특수한 화학물질을 이용한 SPECT 검사나 PET 등의 보조적 진단 검사가 있지만 이 병을 진단하는 데는 현재 환자의 특징적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와 함께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파킨슨 병은 도파민 약제 투여로 많이 호전되는데 이 약제에 의한 증상호전 유무가 병을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 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서둘러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병의 원인이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근본적 치료나 예방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현재의 치료는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증상 완화요법이다.

파킨슨 병 증상완화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이 두가지 치료법은 상호 보완적이다.

처음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먼저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약물치료 후 약 5-10년 정도후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몸 꼬임과 같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 이 때부



백선하 교수가 감마 나이프 시술과 뇌심부 자극술에 의한 파킨슨병 치료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터는 뇌심부 자극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뇌심부 자극술이란 파킨슨병에서 병적으로 활성화돼 여러 증상을 유발하는 하시상핵이라는 뇌심부핵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자극을 주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신경회로를 조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다.

뇌심부 자극술은 뇌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자극기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미세 조절이 가능해 개인별로 증상에 따라 정밀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뇌심부 자극술은 1987년 처음 소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 만명의 환자들이 시술받아 효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임상 논문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심부 자극수술 후에는 수술 전 복용하던 약물의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된다. 뇌심부 자극술의 수술이 잘 된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 거의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수술 전에 비해 거릿말같이 수술 직후부터 생활이 편해지게 된다.

반면 뇌심부 자극술 시행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출혈이다. 통계학적으로 100명중 1-2명 정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 환부감염, 경련 등 합병증이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고 곧 회복하게 된다.

수술 후는 수술 전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절반가량으로 줄이게 되는데 4분의 1정도의 환자에서 복용하던 약물을 끊게 되기도 한다. 자극기의 배터리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4-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 배터리 교체 시기가 되면 국소 마취를 통해 교체해야 한다.

이 밖에 수술후 주의할 점으로는 몇 주간은 격렬한 운동은 삼가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을 때 수술 부위가 눌리거나 문질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심부 자극기는 자기장에 매우 민감한 기구라 수술 후 항상 뇌심부 자극술을 받았다 증명카드를 휴대해야 한다. 특히, 도난방지용 검색기, 경비망, 공항등의 안전장치는 뇌심부 자극기 시스템의 작동을 바꿀 수 있어 검색대 통과 전 반드시 증명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뇌심부 자극술 시행 후 여러 이유로 MRI를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특별히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극발생장치를 끈 뒤 촬영하고 촬영을 마친 뒤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서울대 병원 파킨슨 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개소해 신경외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 치료센터로 각 임상 관련 진료과가 통합된 맞춤치료를 제공중이다.

파킨슨병은 하루중에도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짧은 외래진료 시간에 환자들 의 전체적인 증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대 병원 파킨슨 센터는 이러한 외래 진료의 단점을 보완해서 24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환자들을 장시간 관찰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약물조절과 환자마다 뇌심부 자극술의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술 후 환자들의 상태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

기 고

치과의 질병과 예방



표한승(치대 58)

치과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일 많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치(Caries)와 풍치(Periodontal Disease 치주염)다.

▶충치=충치는 치아가 썩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에 의해 치아가 파괴되는 것이다.균은 Plaque를 만들어 생존하는데 Plaque는 치아색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고 죽은 균들과 균의 분비물 등이 부패되면서 끈적끈적한 냄새가 나고 끈적끈적하게 치아면에 붙어 있다. 눈썹만한 양(1mm)의 Plaque에 무려 250 million의 균이 살고 있다. 균의 종류는 300종 정도로 어떤 균은 충치, 어떤 균은 풍치를 만든다. 젊은 시절 진해의 한 초등학교에 구강검진을 갔었다. 어떤 아동은 치과거울을 넣었다 때보니 Plaque가 더덕 더덕 붙어 나왔다. 그 후 서울에서 덕수 초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게 됐다. 치아는 깨끗했지만 금니*은니*충치 등 다양했다. 충치는 균이 일으키지만 균 외에도 음식물, 유전성(개인의 저항력)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생긴다. 약 60년 전에는 미국인 아동에 충치가 많았는데 지금 아동들의 충치는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인디언 등 Minority에 더 많다. 치과 위생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치아는 인체에서 제일 강도가 강한 Enamel로 덮여 있다. 약 200 Pounds per square inch 힘으로 씹으며 평생 쓰러니 강할 수밖에 없다. Enamel은 97%가 무기물로 수정과 같이 깨질 수도 있다. 깨짐방지를 위해 속에 Dentin이라는 Supporting structure가 두껍게 받쳐 주고 있다. 무기물이 70%, 유기물이 30%다. 속에는 다시 공간이 있어 치수(신경*피, 다른 조직이 들어 있는데 달로 아프므로 보통 신경으로 알려져 있다)가 있어 Dentin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 치아 형태 중 어금니에는 산봉우리처럼 솟은 곳(Cusp, ridge)이 있는가 하면 강처럼 깊은 골짜기(Groove, Pit, Fossa)를 이룬 곳도 있다. 원래는 위 아래 치아가 튼튼바퀴처럼 잘 맞물리게 된 것인데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많다. 육식과 채식을 하게 된 인간은 고기를 뜯을 수 있는 뾰족한 송곳니(Canine)도 있고 밥을 씹을 수 있는 어금니(Molar)도 있다. 음식물이 치아에 씹히면 부서진 곡물은 치아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균이 이런 양분을 먹고치아면

매일, 식사후 무조건 이를 닦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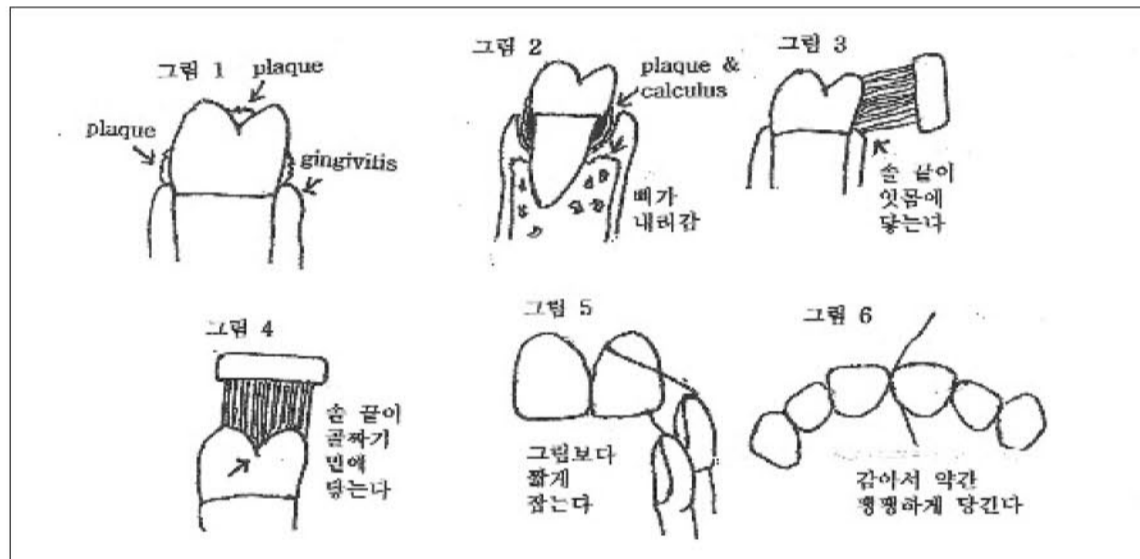
칫솔질은 철저하게 해야 플라그 방지

에 Biofilm을 만들며 사는데 주로 잇몸 근처에 붙어 있다. 치아와 치아 사이, 또 씹는 면의 골짜기에 쌓여 있다. 그곳의 균이 Enamel을 장구한 시간을 거쳐 파괴하는데 일단 그 속의 Dentin에 도달하면 쉽게, 크게 퍼진다. 이 썩는 속도는 어린 치아나 젊은 사람에게서 빠르고 나이가 먹으면 경화(Sclero)돼 속도가 점점 늦어진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뿌리가 노출되는데 노출된 뿌리, Dentin은 반드르한 Enamel과 달리 더 거칠고 약하므로 쉽게 썩는다. Enamel과 뿌리의 경계선(Cemento Enamel junction)이 있어 형태적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아주 늙어 손 기능

Plaque가 오래 되면 차차 석회화돼 딱딱하게 치아면에 붙는다. 또 치아색깔 비슷한 옅은 Plaque 색깔은 누런색으로 변하고 더 오래되면 까만색으로 변한다. 이 치석(Calculus, 또는 Tar-tar)은 치과기구로 떼어내는데 Scaling, 또는 Cleaning이라 부른다. 치석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있게 잇몸 위에만 있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치석과 Plaque는 차차 치아면을 따라 잇몸속으로 들어가는 데 몇 mm, 또는 뿌리 끝까지 침범하기도 한다. (그림 2)이렇게 되면 잇몸이 뿌리에서 붙어있지 못하고 들뜨는데 치과에서 그 깊이를 mm로 재서 그 병의 척도를 알아낸다. 이때 뿌리를

끼 닦아 예방한 것이다. 그러면 화학 약품으로 균을 죽일 수 있을까? 없다. 핵무기로 세상의 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화학약품으로 입안의 모든 균을 죽일 수 있다면 그 부작용이 문제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균 죽이는 약물 Chlorohexidin-Glucanate 0.12%가 나와 처방해 쓰지만 부작용이 있다.

▶예방=치약과 칫솔, 치실(Floss)로 매일, 가능하면 매 끼 식사후 골고루 닦아 균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닦을 때는 항상 칫솔 끝이 어떤 치아의 어떤 부분에 닿고 있는지 느껴면서 닦는 것이 좋다. 하루 한 번을 닦더라도 잠자기 전 철저히 닦는 것이 좋다. 이렇게



(Dexterity)이 저하되면 뿌리는 건잡을 수 없이 썩기도 한다. 충치가 Dentin통과 후 Pulp(치수)에 도달하면 균은 순식간에 감염, 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치통이 올 수 있고 또한 아프게 치수염이 진행될 수도 있다. 결국 신경치료를 하고 보통 씌우고(Crown) 또 씌우기 전에 기둥도 해서 치료비가 간단한 충치일 때우는 것보다 10-20배 더 든다. 만약 신경치료를 안하면 균은 뿌리끝을 지나 뼈를 침범하는데 골절나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

▶풍치(치주염)=치아 자체의 병이 아니고 잇몸과 치아를 잡아 주는 잇몸 속 뼈의 병이다.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고 아프지 않게 진행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치보다 풍치로 빠지는 것이 더 많다. 특히 동양인에게 더 많다. 풍치 역시 Plaque의 균에 의해 생기는데 저항성(유전)이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잘 파괴된다. 잇몸병의 제일 초기는 뼈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잇몸에 국한된 것으로 Gingivitis라 부르는데 잇몸 가장자리가 빨갛게 붓고, 건드리면 피가 나오며 아프다. 이 단계는 Plaque만 없애면 바로 낫는다. (그림 1)그런데 이

불들고 있는 뼈가 파괴되는데 X-Ray 상에는 그 병은 뿌리의 주위가 검게 나온다. 뿌리를 지탱해주는 뼈가 파괴되면 씹을 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심하면 흔들리기도 하며 은근히 dull하게 아프기도 한다. 이정도 되면 치료도 잘 안되니 치과에 가서 그 치아의 운명을 의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충치와 풍치 원인균들이 Plaque를 만들어 생존하고 있으니 그 Plaque를 칫솔과 치실(Floss)로 매일매 끼마다 철저히 제거하면 예방된다. 문제는 많은 치아가 잇몸에 있기 때문에 그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Plaque를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닦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나 다 자신은 이를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 치아가 충치나 풍치에 의해 빠졌다면 잘못 닦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 환자에게 설득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발라 이를 닦곤 했다. 우리 조부모는 치아가 빠진 것을 보았다. 좀 발달돼 우리 부모는 치아 빠진 것을 부분틀니로 복구했다. 나는 충치나 풍치로 빠진 치아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유전인자 즉 저항성은 비슷한데 치과 의사 치과 IQ가 높아져 매일, 매

닦고 자도 다음날이면 Plaque가 생긴다. 칫솔은 보통 Nylon인데 부드러운 것이 치아마모가 덜 되고 잇몸의 손상도 덜하다. 보통 칫솔모의 Diameter는 7mil인데 더 가는 것은 6mil로 유아*아동 칫솔에 사용된다(필자는 무슨 도구를 쓰라는하고 싶지 않다.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보통 칫솔을 쓰는 전동칫솔을 쓰는 잘 닦기만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칫솔 끝을 그 Plaque가 쌓인 잇몸근처에 닿게 하고 어느 정도 누르는데 사실 아주 약하게 눌러 손 끝이 1-2mm 정도 거리만 왔다 갔다하게 흔드는 것이다. 너무 누르면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주고,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

면 솔끝이 Plaque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잇몸은 칫솔질에 방해가 되지만 잇몸은 칫솔질의 이정표로 사용해야 한다. 즉 칫솔 일부의 솔 끝이 잇몸에 살짝 닿게 해야 솔 끝이 잇몸근처에 Plaque가 있는 곳에 닿게 되는 것이다. (그림 3)이렇게 잇몸 근처를 전부 닦은 다음에는 씹는 면의 골짜기에 솔 끝을 꽂고 1-2mm 움직여야 한다. (그림 4)그런 다음 Floss를 40cm 정도 잘라서 양쪽 가운데 손가락에 피가 통하도록 살짝 감은 후 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뽕뽕하게 길이는 약 1-2 cm 정도 짧게 잡아 control되고 입술에 닿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림 5)치아 사이사이에 넣는데 접촉점을 지나 잇몸에 살짝 닿게 하고 'C'자로 잡아 위 아래로 잇몸에서 접촉점까지 서너 번 훑는다. 다음에는 또 인접 치아면에 가서 반복한다. (그림 5, & 그림 6)Flossing이 끝나면 물로 가신 후 칫솔로 목구멍 속 쪽의 혀에 붙은 것을 쓸어내고 흡사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닦아낸다. 이렇게 치아를 전부 닦는데 필자는 약 5분 정도 걸린다. 다 끝났으면 가끔 혀 끝으로 plaque가 있던 아래 어금니 안쪽 잇몸 근처의 치아면을 감지해 보라. 잘 닦았으면 반드르한 걸 느낄 수 있고 안 닦았으면 짙은 쪽 쪽쪽하다. 일찌기 돈키호테(Don Quixote를 쓴 Spain의 작가 Cervantes는 "치아는 Diamond 보다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그 옛적에 그런 선견지명의 발언에 나도 동감한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다. 어떤 사람은 치아에 대한 가치관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다. 위대한 George Washington은 치과 주치의가 있었는데 나무로 틀니를 했다고 들었다. 모택동은 치아를 안 닦았다고 한다. 정적을 없애는 데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Cervantes는 치아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반면에 George Washington은 치아에 대한 가치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치아도 수명이 있다. 보통 60-100년 쓰게 돼 있는데 나의 경우는 병으로 빠진 것은 없고 치아가 깨져 잃은 것은 하나 있다. 또 씹는 면이 달고 귀통이가 깨져서 크라운을 씌운 것도 있다. 치아 수명이 내 생명보다 능가할 것 같이 느낀다. 이렇게 아름다운 치아를 깨끗이 닦아 유지하도록 오늘도 나는 환자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다.



고국 동문

신간 · 공연

■ 6·25와 나
- 이하우 · 최명 공편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958년 모교 별대에 입학한 동기생들의 6·25 전쟁 회고

답을 모은 책 '6·25와 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하우(행정 58~62)동문, 모교 정치학과 최명(법학 58~62)명예교수 등 모교 별대 58학번 동기 38명이 60년전, 초등학교 5~6학년 시절 체험한 6·25전쟁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았다.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한 70대의 동문들은 소년시절의 상처만을 아파하지 않았다. 역사의 비극이 마치 남의 일처럼 잊혀져 가는 세태를 더욱 안타깝게 여겼다. <까치글방·값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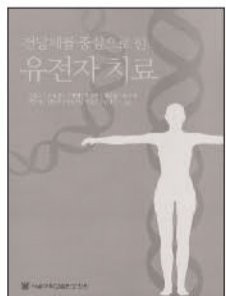
■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 이연숙 의 지음

모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연숙(농가정 65~69)·윤지현(식품영양 88~93)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장수경(농가정 88~92)연수연구원, 심재은(식품영양 90~94)일리노이대 방문연구원이 남북한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영양 그리고 영양정책 등의 식생활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와 영양상태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면서도 효율적인 영양정책 수립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총망라해 정리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값 15,000원>

■ 전달체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치료
- 조중수 의 지음



모교 농생명공학부 조중수(잠사학 66~70)·제연호(천연염색 86~90)교수, 수의학과 조명행(수의학 78~85)교수, 제약학과 오유경(제약 82~86)교수 등이 다양한 유전자 전달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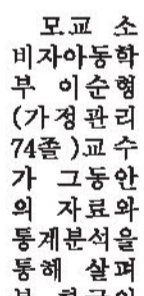
해 설명했다. 이 책은 유전자 전달체인 바이러스, 벡터로 바이러스, 리포솜, 고분자 벡터의 특징 및 유전자 치료에의 응용, DNA 백신의 효과적인 전달법과 전망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과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에 관한 규정과 절차도 수록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 15,000원>

■ 태아 심초음파
- 최정연 지음



모교 의대 소아과학교실 최정연(의학 68~74)교수가 태아 심장질환의 양상과 진료, 예후 관리, 초음파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 환자의 출생후 사례도 함께 소개해, 산모 배 속의 태아부터 출생후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내어 소아 심장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병원에서 실제 진단에 사용하는 기법은 동영상인데, 기존 교재들은 대부분 사진자료에 의존하기에 교육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병원 현장에서 쓰는 방법과 동일한 기법인 초음파 동영상을 그대로 담아 한 장의 DVD와 동영상 해설집도 함께 펴냈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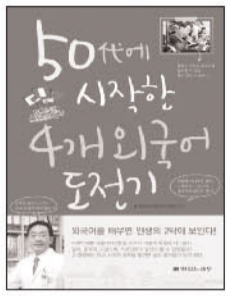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아정체 형성과 변화
- 이순형 지음



모교 소비자이동학부 이순형(가정관리 74)교수가 그동안의 자료와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인의 자아정체 이야기. 이 교수는 한국인의 자아정체 형성의 변화에 따라 드러나는 형태를 시대의 흔적을 따라 찾아내 해석하고 소개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자아정체 이론의 논쟁점, 가상공간의 특성, 연구대상, 연구절차, 자기개념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개념과 관련해 자기개념, 자아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보려는 시도와 가상자아와 실자아의 관계를 규명해 일치 정도를 밝히고 각각의 특성을 밝혀려는

시도가 새롭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 20,000원>

■ 50대에 시작한 4개 외국어 도전기
- 김원곤 지음



모교 의과대학 심장연구소 김원곤(의학 72~78)소장의 외국어 도전기. 50대가 돼 우연히 시작한 외국어 공부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4개 외국어를 정복하게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았다. 인생의 중·장년기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소개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준다. <맛있는공부·값 11,000원>

■ 도시와 유비쿼터스 융합
- 오재인 지음



단국대 경영학부 오재인(경영 76~80)교수가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융합된 도시인 'u-City'를 정의하고, 구성요소간 상호관계를 명쾌히 밝히고 있다. 먼저 시각 전환에 걸맞게 u-City 이슈들을 엄선하고, 내용이나 목차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차별화했다. 또 다양한 모형이나 프레임워크를 새로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등 독창성을 제고했다. 예를 들면 u-City 구성요소들간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치사슬 모형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u-City 방향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경영기법을 적용했다. <박영사·값 19,000원>

■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 장인성 역음



모교 의과대학 장인성(의교 77~81)교수가 팡운대 장태웅(동양사학 91~97)교수 등과 함

공연

■ 소노리테 목관 5중주
- 세종문화회관서

지난 2008년 플루티스트 장선우(기악 94~98 원주시향수석)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노리테(Sonorite 울림)'팀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동유럽의 목관음악'을 주제로 테마 음악회를 개최했다. 오보이스트 조정은(기악 94~98 인천시향 부수석)동문, 호르니스트 최정일(기악 91~95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수석)동문 등과 함께 파르카스, 드보르작, 리게티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 박준영 바이올린독주회
- 예술의 전당

메릴랜드주립대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준영(기악 93~97 한양대 강사)동문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다. 이날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을 선사해 청중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 서수민 비올라독주회
- 예술의 전당

앙상블 에클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서수민(기악 97~01)동문(사진)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 독주회를 가졌다. 이날 모차르트, 슈만, 생상스 등의 작품으로 비올라만이 가질 수 있는 컬러를 보여주었다.

게 일본의 보수적 실재에 접근한 책. 특히 표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보수를 들여다본다. 우리는 '야스쿠니', '일본시스템', '천황', '자민당'과 같은 말에서 일본의 보수를 상기한다. 보수표상은 일본사회의 보수성이 지닌 일반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매개일 수 있다. 표상은 현상의 서술이나 기술적 분석에 치우친 일본 연구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줄 것이다. 표상이 생산과 유통, 재현과 전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후 일본사회에서 작동하는 역할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 15,000원>

들에 한쪽으로 편향하지 않고 꼼꼼하고 정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이진회'의 실재를 형성한 생애 전반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휴먼북스·값 20,000원>

■ 스무살, 인문학을 만나다
- 서울대 인문대학 지음



'인문학'을 둘러싼 사회의 담론들(위키론부터 실용론까지)을 보면서 인문학의 성격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 온 모교 인문대학의 성찰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 책은 인문학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연구자들의 특성을 살려서 실제 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인문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사례와 성과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이 인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접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기획의도 아래 모교 인문대학 1백70여 명의 교수들 중 먼저 24명의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를 대중적으로 풀어 담 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린비·값 15,000원>

■ 이진회 스토리
- 이정식 지음



영 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연극 '춤추는 시간 여행', 드라마 '선감도' 등의 대본을 쓴 이정식(경영 80~84)동문이 삼성 이진회 회장의 생애와 리더십을 다뤘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진회 회장의 생애를 시기별로 면밀히 추적하며, 이진회 리더십을 규명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세간의 평가

세계명화 감상<5>

마크 샤갈과 그의 명작들



평화 1964 Stained Glass 3.5 x 5.3 m 유엔 빌딩, 뉴욕

연대미술 독특한 위치의 거장

꿈과 사랑을 표현한 화가·시인·음악애호가



임이섭(미대 54)

마크 샤갈 (1887~1985)은 현대미술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장이다.

그는 20세기 초의 입체파, 야수파와 초현실파 등의 화풍을 두루 실험했지만 샤갈만의 미술세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종교적으로 자라면서 소년 시절의 꿈과 사랑을 평생토록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며, 시인이며 음악 애호가였다.

1887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독일

과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창작활동을 하여 세계적인 명성과 총애를 받았다.

그의 그림은 파리의 음악당, 이스라엘의 성당들, 뉴욕의 링컨센터 그리고 시카고 미술관 등을 장식, 전세계적 명성을 떨치며 97세까지 창작 활동을 했다. 작품 색깔은 다채롭고, 꿈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시와 음악의 예술로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았다.

평화 1964

샤갈은 1950년 이후 많은 스테인드 글래스 작품의뢰를 받고 제작했다. 이 작품은 인간의 환희, 천사들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낭만, 그리고 뛰노는 동물들과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찬 이 세상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 등으로 모두 우리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정색의 교향곡같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엔빌딩을 방문하는 온 인류에게 선물을

하는 샤갈의 역작으로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갈망하는, 시와 노래의 파노라마라 하겠다.

The Fiddler 1913 유화

어릴 때 꿈속에서 자리잡은 수수께끼 같은 외로운 Fiddler는 평생 그의 그림 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다. 소년시절 유대교 풍습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예식에서 들은 음악을 지붕 위에서 연주하고 있는 Fiddler를 통해 그림에 표현했으며 때로는 눈물울, 때로는 환희의 무도회를 자아내었다.

이 그림 속의 날은 천사와 풍경들은 모두 그의 서정시의 한 구절이며, 바이올린의 선율을 통해 인류의 사랑과 서러움을 듣게 하면서 시각적인 메타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The Birthday 1915 유화

두 연인은 화려한 꽃다발의 향기를 맡으며 뒤쉴레는 낭만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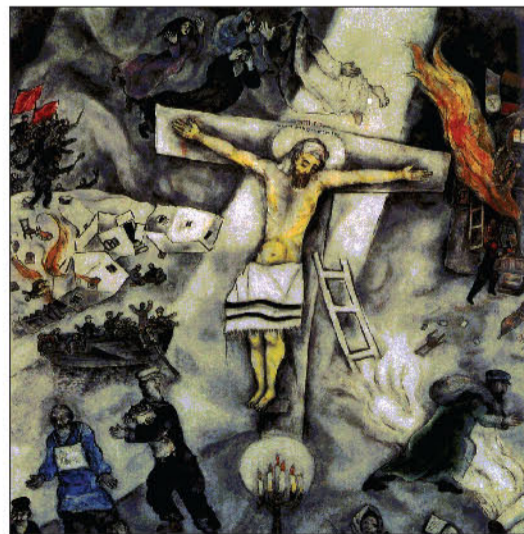
↑The Fiddler 1913 유화 188 x 158cm Amsterdam Museum

에인 벨라가 음식과 선물을 샤갈의 방에 갖고 와서 샤갈의 생일을 축하하며, 두 사람이 정적이 흐르는 창 밖으로 날아갈듯이 공중에 들며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 그림은 20세기 초 사랑을 상징하는 파격적인 그림 중 하나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샤갈의 그림에서 영원한 소재가 됐다.

White Crucifixion 1938

1938년 독일 나치정권은 유대인 학살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유대교 성전을 불사르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압송하거나, 사살하고 온갖 탄압을 강행할 때 샤갈은 이 작품을 제작했다. 유대인의 탈리스로 몸을 가린 그리스도가 흰 십자가에서 수난당할 때 나치는 성전과 유대인의 가옥들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몸부림 치면서 피난하는 장면을 묘사해 나치의 행패를 규탄한 것이다. 유대교인인 샤갈이 십자가의 수난을 인류의 수난으로 받아 들여 그의 종교적 입지를 초월한 걸작이다.

←White Crucifixion 1938 155 x 140 cm 시카고 미술관



↓The Birthday 1915 유화 81 x 100 cm 뉴욕 현대 미술관

지역 소식

뉴욕



뒷줄 왼쪽부터 한창섭 · 에드워드 강 · 김창수 · 정인식 · 김상준 · 최수용 · 임광수 총동창회장 · 이준행 뉴욕 골든클럽 회장 · 김성준 · 김종율 · 이진구 · 홍종만 등문. 앞줄 왼쪽부터 이용재 · 손규성 · 손경택 · Mrs. 손규성 · Mrs. 이용재 · Mrs. 김성준 · Mrs. 손경택 · 송성문 등문

‘골든 클럽’ 정기 산행 실시
총 21명, 임광수 총동창회장도 참가

뉴욕지역 골든 클럽이 지난 6월 16일 모교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모신 가운데 총 21명이 참가해 West Mountain Ridge Trail 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지난 11-13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19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 후 뉴욕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로 매마침 이뤄진 것이다. 이날 산행에서는 대체의학 송성문 박사를 특별 초청해 건강강의를 곁들여 이뤄졌다. 송성문 박사는 산행을 출발전, 산행 중, 하산 후 등으로 나누어 관절 스트레칭 운동 요령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 이와 함께 임광수 총동창회장께서는 노익장 건강관리 요법에 대한 체험담을 들려주어 동문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되새

겨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한편 이준행 골든 클럽회장께서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노령임에도 오랫동안 스트레칭 운동을 통한 척추와 팔다리 관절의 유연함을 보여주어 참석자 모두를 감탄스럽게 했다. 이번 산행은 능선 길의 총 길이가 4마일 정도로 비교적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지만, 오후에 한 두차례 소나기가 예보돼 비 오기 전 산행을 끝내려고 조금 서둘렀다. 그리 무덥지 않은 쾌적한 하루였으며, 산행 후 뉴욕지역 동창회 환경수 회장이 중국성 식당에서 환영 만찬을 주선했다. 이 만찬에는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본교의 세계화, 일류화 추진 상황 및 향후 전망,



총동창회 건물 준공 및 장학기금, 교수 연구지원 자금확보 등에 관한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뉴욕 골든클럽은 정기적으로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산행은 오는 7월 21일(수

요일), Harriman State Park, Cobus Mountain에서 있을 예정이다. <골든클럽 총무 홍종만> 뒷줄 왼쪽부터 손규성 · 홍종만 · 손경택 · 김상준 · 김성준 · 이용재 · 김종율 · 한창섭 · 최수용 등문. 가운데줄 왼쪽부터 송성문 · 임광수 총동창회장 · 김창수 · 이진구 · 에드워드 강 · Mrs. 손규성. 앞줄 왼쪽부터 이준행 뉴욕 골든클럽 회장 · Mrs. 이용재 · Mrs. 김성준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의 개최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한경수)가 지난 6월 5일 푸트남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2010년 춘계골프대회’를 가졌다. 5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

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입상을 한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손영철(남), 이정자(여) ▶근접상= 한창연 ▶장타상= 손경택(남) 이회자

골프대회를 시작하기 전 참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 ▶1등상= 이대영(남) 김난기(여) ▶게스트상= 유희나 ▶임광수 총 동창회장배 단체상= 공과대

뉴욕지역 최초 외국인 모교입학 설명회

뉴욕의 뉴저지에서는 처음으로 모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설명회가 지난 6월 열렸다. 3일 동안 뉴저지 RGS와 뉴욕 대동연회에서 3회 연속 개최된 이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우리 동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모교 입학 관

계자들이 직접 나와 지난 해 세계 대학평가에서 47위에 오른 모교의 높은 학문 수준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학부과정에 처음으로 도입한 9월 입학 허용 및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액 장학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지역 소식

워싱턴 • 뉴잉글랜드



워싱턴 지부 여행 동아리

러시아와 발틱3국 관광

워싱턴 지부 여행 동아리(회장 이영목)가 지난 5월 16일부터 11박 10일 동안 북유럽 러시아와 발틱 3국을 여행했다. 이번이 5회째로 모두 33명이 참가한 이번 여행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리고 발틱 3국의 아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지를 관광한 것이다. 워싱턴 지부 여행동아리는 여행을 좋아하는 동문들이 만든 자생단체다. 평균 65세로 무리하지 않은 일정에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좀 편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위주로 하

고 있다. 이 여행 동아리는 그동안 지중해/그리스/터키 크루스 여행에 45명, 이집트 여행에 120명이 참가했으며 인도 여행에 40명, 이번 북유럽에 35명이 참가해 관광은 물론 동문간 우의를 다져왔다. 내년 3월 경에는 페루, 아마존, 브라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자격은 전 미주 동문들에게도 개방하고 있어 이번 여행에서는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필라델피아, LA, San Diego 등지에서도 참가했다



여행 동아리에 참가 여행 중인 회원들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몽고를 물리친 기념으로 건립한 '바실리 성당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왼쪽 사진은 라트비아에서 리투아니아 가는 길 '유럽의 거리, 무게 중심이 되는 곳' 이라는 곳이다.



2010/06/13 04:20



2010/05/12 07:14

↑관광객을 위해 제작해놓은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 위에 조두연 이인세 동문이 올라가 창 밖으로 내려다 보고 있다.

↓만물상 바위계곡이라고도 하는 데브란트 계곡은 말 그대로 기이한 석회암 바위와 산으로 가득하다. 앞줄 왼쪽부터 윤상래·박재길·이수걸·윤재득·김정준·최성종 동문. 뒷줄 왼쪽부터 최정철·손충수·주한수·이인세·조두연·김순무·이완준 동문.

뉴 잉글랜드 수의과 62년 입학 동기생 모임

터키 관광 명승지 답사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윤상래 (수의과 62) 동문을 비롯한 수의과대 동기들 13명이 동행부인으로 지난 6월11일부터 18일까지 터키에서 모임을 갖고 관광 명승지를 답사했다. 일행은 첫날 트로이 목마 및 유적지 호텔에서 조식후 마르파라 해협을 따라 세계 제1차 대전의 전략 요충지 차나 칼레의 바블렉을 지나 8일간의 본

격 관광을 즐겼다. 바블렉은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의 처칠이 이끄는 25만군대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끄는 터키군 간 치열한 전쟁을 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명성을 얻은 무스타파는 1923년 부패와 무능으로 무너져가는 오스만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현 터키 공화국을 건설하게 된다. <윤상래>

↑셀수스 도서관. 기록보전을 위해 처음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해 썼으나 이집트의 수출금지로 대신 양가죽을 개발해 썼고 이로 이 지역의 양가죽 산업이 발전해 전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고국 동문 동정

수상·인사·부음

수상

▲김형효(철학 58 ~ 62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지난 5월 14일 대한불교 진흥원으로부터 제 1회 원효학술상(교수부문) 대상 수상.

▲이정수(회화 58 ~ 64 강원대 전교수)=지난 4월 19일 서울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제50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포장 수훈.

▲남철현(보대원 62 ~ 64 대구한의대 명예교수·대한보건교육사회장)=지난 5월 7일 '보건교육사'의 국가자격화에 기여해 한국보건교육진흥진흥학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오윤진(행대원 63 ~ 65 해병대전우회 전 총재·안중근의사 숭모회 자문위원)=지난 5월 16일 제 45회 5·16민주항쟁(안진보장부문) 수상.

▲이기영(가정교육 66 ~ 70 모교 소비자동학부 교수)=지난 5월 17일 2010년 가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조진욱(화공 75 졸 한국마스프 회장)=지난 5월 4일 한국농협 협회로부터 '2010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김의환(공업교육 73 ~ 77 국방과학연구소 전차사업단장)=지난 5월 16일 제45회 5·16민주항쟁(과학기술부문) 수상.

▲신창재(의학 72 ~ 78 교보생명 보험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5월 25일 제 19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

▲박상훈(화공 73 ~ 77 SK 기술혁신센터장)=지난 5월 19일 제45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손영숙(식품영양 76 ~ 80 경희대 교수)=지난 5월 19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6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최수철(불문 77 ~ 81 한신대 교수·소설가)=지난 5월 28일 제 17회 김준성 문학상(옛 이수문학상) 수상.

▲민병찬(SPARC 14기 한말대교수)=지난 4월 21일 제4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 수훈.

▲이덕수(ACAD 44기 타임즈코어 회장)=지난 5월 19일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영자신문부문) 수상.

▲김영석(경제 60 ~ 66 전 우석대 총장·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임명.

▲하명근(경영 66 ~ 7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최근 임기 3년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3대 청장에 선임.

▲이희범(전자공학 67 ~ 71 STX에너지·중공업 회장)=지난 5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차기 회장에 추대.

▲유석희(의학 66 ~ 72 중앙대 교수)=최근 대한고혈압학회 제19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취임.

▲성상철(의학 67 ~ 73 모교 병원장)=지난 5월 7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35대 회장에 선출.

▲이상룡(사회사업 74 ~ 78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차장)=지난 5월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2대 원장에 임명.

▲김근수(경영 77 ~ 81 기획재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전 사업지원단장)=최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선임.

▲김제우(행대원 84졸 아주그룹 전 부회장)=지난 5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

▲김선수(법학 79 ~ 86 변호사)=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에 선출.

▲정성희(국사 82 ~ 86 동아일보 논설위원)=지난 5월 20일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에 선임.

▲이창로(산업공학 84 ~ 88 한국기술투자자 이사)=최근 한국기술투자자본부 상무에 선임.

▲차운정(임학 85 ~ 89 경원대 체임버교수)=지난 5월 17일 국토해양부 4대장 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분부장에 임명.

▲성득룡(동물자원 88 ~ 92 삼성벤처투자 근무)=최근 한국기술투자자본부 팀장에 선임.

▲박건동(SGS 7기 동원시스템즈 건설부문 전 사장)=지난 4월 29일 대보건설 대표이사 사장 선임.

▲조순(상대전문 46 ~ 49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팔순 기념 화합과 현실'봉정식 개최.

▲남덕우(대학원 56졸 한일협력 위원회장)=지난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의교와 한일 협력'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김기성(지리 64 ~ 68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지난 5월 26일 동국대에서 '세계 속의 한국 콘텐츠 출판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박현렬(화공 67 ~ 71 중앙대 힐텍·힐빙 문화연구소장)=지난 5월 13~14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이광택(행정 68 ~ 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5월 25~28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데 인디에서 열린 국제노동

사회법학회 집행위원회 및 제8차 미주지역대회 한국대표로 참석.

▲안병찬(신대원 71 ~ 75 언론인 컨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네트워킹,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황규호(경제 74 ~ 7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5월 22~23일 서울 여의도동 한강공원 수상경기장에서 제4회 카누·드래곤보트 대회 및 제3회 해양소년단 총재메이트대회 개최.

▲정재호(국어교육 79 ~ 83 모교 의교학과 교수·중공연구소장)=지난 5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상기(서양사학 81 ~ 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5월 24~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80여개국 500여 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된 제7회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참석.

▲최진주(회화 81 ~ 85 경북대 강사)=지난 6월 9~15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지나간 봄'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윤이나(성악 86 ~ 90 수원대 교수·소프라노)=7월 31일까지 서울 잠실동 롯데시어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칼

롯타 역으로 공연.

▲설근대(행대원 88 ~ 90 순창 설씨 대종회장)=지난 4월 25일 부산시 설동근 교육감에게 '자랑스런 경주, 순창 설씨인상' 시상.

▲이태정(기학 93 ~ 97 바이올리니스트)=6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이니스 앙상블 단원인 임만희(기학95 ~ 99 피아니스트)·채경

애(기학95 ~ 99 바이올리니스트)·이현정(기학96 ~ 00 첼리스트)등문 등과 함께 '낭만, 그 Klang의 향연' 정기연주회.

▲김시형(작곡 92 ~ 96 명지대 교수)=오는 6월 16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음악이야기II' 개최.

▲서윤진(기학 94 ~ 98 동아대 초빙교수·피아니스트)=6월 1일 창원 성산아트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교 기악과 아비람 라이히르트 교수와 듀오 연주회 개최.

▲노윤진(기학 03 ~ 07 첼리스트)=6월 18일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서 덕영트리오 단원인 전재성(기학03 ~ 08 바이올리니스트)등문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위한 음악회 개최.

▲김철운(AMP 33기 한국물가협회장)=지난 5월 1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5회 물가안정대상 시상식 개최.

▲이상수(물리 46 ~ 49 KAIST 명예교수)=5월 7일 별세(85세)

▲임선욱(농화학 52 ~ 56 모교 명예교수)=5월 30일 별세(78세)

▲강명규(경제 52 ~ 56 모교 명예교수)=5월 30일 별세(77세)

▲이진우(법학 52 ~ 56 전 국회의원)=5월 9일 별세(76세)

▲김광일(법학 58 ~ 62 변호사)=5월 24일 별세(71세)

▲이상안(행대원 74 ~ 76 경찰대 전교수)=5월 18일 별세(65세)

▲연계원(AMP 3기 삼호공업 회장)=5월 6일 별세(83세)

▲정석홍(ACAD 20기 동신대 객원교수)=5월 24일 별세(74세)

인사

행사

참가 명부를 받습니다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09~2010년 동창회비

Alaska

배석연 (농대58)
윤제중 (농대55)

Alabama

유성무 (상대66)
진창건 (의대55)

Arizona

김동호 (농대58)
김영철 (공대55)
박양세 (약대48)
신태성 (공대71)
유기석 (문리61)
지영환 (의대59)
진명규 (공대70)
최윤근 (공대59)

California

강경수 (법대58)
강길용 (공대46)
강신호 (사대49)
강윤희(간호72)
강정훈 (미대56)
강중경 (공대48)
강천호 (사대58)
강홍채 ()
강희창 (공대57)
고석규 (치대67)
고영철 (의대45)
고용규 (의대67)
고재천 (공대57)
곽한석 (상대46)
구무옥(문리55)
구혜선 (미대81)
권기상(경원72)
권길상 (음대45)
권대원(경대원59)
권영달(문리50)
권영덕 (공대54)
권영재 (의대57)
권영조 (의대57)
권오형 (사대61)
권치근 (공대51)
권태삼(수의73)
김건진(문리62)
김경신 (사대70)
김경화(간호69)
김제운 (의대57)
김광은 (의대56)
김광철 (음대59)
김광한 (농대63)
김교복 (농대63)
김근민 (법대56)
김기덕(사회과)

김기수 (공대74)
김기태 (의대52)
김낙구 (상대67)
김동산 (법대59)
김동석 (음대64)
김범수(문리61)
김병삼 (공대52)
김병연 (공대68)
김병호 (상대57)
김상엽 (공대57)
김석두 (농대58)
김석홍 (법대59)
김선기 (법대59)
김세담 (법대55)
김수백 (치대49)
김순길 (법대54)
김순자 (치대57)
김승현 (의대75)
김영덕 (법대58)
김영배 (미대)
김영상 (법대57)
김영석(문리54)
김영석(상대62)
김영옥(간호69)
김영춘(수의64)
김영한 (법대54)
김영희(생과69)
김용선
김용수(경영74)
김용제
김원경 (약대59)
김원탁 (공대65)
김유갑 (약대51)
김은희 ()
김익창 (의대49)
김일영 (의대65)
김재무 (상대58)
김재영 (농대62)
김재중 (치대62)
김정복 (사대55)
김정민 (공대66)
김정애(간호69)
김정화 (미대63)
김종일 (상대)
김종표 (법대58)
김주려 (법대48)
김준일 (공대62)
김지익 (의대45)
김진호 (약대64)
김제운 (의대57)
김태웅 (의대57)
김태운 (법대53)
김한평 (치대65)
김현철 (의대57)
김현호(문리59)
김혜숙 (미대68)

김훈(경영대74)
김희재(사대 66)
김희창 (공대64)
나두섭 (의대66)
나승옥(문리59)
남장우 (사대56)
노명호 (공대61)
노상규 (공대60)
노제민 ()
노종근(문리53)
문병권 (상대47)
문병길(문리61)
문병하 (법대51)
문인일 (공대51)
문정현 (약대54)
민병곤 ()
민병환 (약대68)
민영기 (치대61)
박현 (상대 68)
박경호 (사대53)
박경화(문리46)
박국중 (법대57)
박동훈 ()
박민식(수의65)
박성민 (의대58)
박영옥 (사대55)
박우성 (상대77)
박원준 (공대53)
박은숙 (미대62)
박용수 (상대53)
박인수 (농대64)
박임하 (치대56)
박제인 (약대60)
박종성 (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종식 (의대48)
박진득 (농대67)
박찬호(자연81)
박창선 (공대55)
박취서 (약대60)
박태호 (치대66)
박한영 (치대56)
박형철 (사대72)
박희규(수의 55)
방명진 (공대73)
방정자(간호61)
배명옥 (음대58)
배효식 ()
백산옥(간호77)
백성용 (사대52)
백승호 (치대55)
백옥자 (음대71)
변영근(수의52)
부영무 (치대70)
서광일 (상대)
서승열 (공대59)
서정하 (공대55)

서치원 (공대69)
선우원근(공대66)
성락호 (치대63)
성주경 (상대68)
손남수 (미대60)
손창순 (공대69)
손학식 (공대61)
손혜정(수의대)
송기성 (사대52)
송은설 (치대69)
송정자 (의대67)
송준섭 (농대65)
송원표(수의73)
신광재 (공대73)
신대식 (상대60)
신동국(수의76)
신동희 (공대78)
신영규 (의대57)
신영수 (상대70)
신용규(문리61)
신우식 (치대62)
신우천 (치대67)
신정수(간호54)
신정연 (미대61)
신한경 (약대)
신희정 (미대73)
심상은 (상대54)
안백영 (공대75)
안병일 (의대63)
안현중 (음대56)
양광주(문대원58)
양명규 (의대55)
양승문 (공대65)
양은석 (음대70)
양은혁 (상대56)
양창효 (상대54)
양태준 (상대56)
염동해 (농대74)
오경수(간호54)
오계환 (공대64)
오명주(간호77)
오양숙(간호60)
오인근 (약대59)
오찬수 (약대57)
우옥자(간호60)
원미량 (미대65)
유석홍 (상대61)
유의영(문리56)
유재환 (상대67)
유재형 (상대47)
유창호 (약대74)
유현순(간호69)
윤경자 (음대62)
윤석철 (상대60)
윤승희(자연58)
윤용길 (공대55)
윤장희 (상대83)
윤홍기 (의대58)
윤희성 (치대65)
이 선 (의대 42)

이강원(인문76)
이정수(수의73)
이근설 (상대56)
이근호 (공대46)
이기재 (사대52)
이기준 (법대54)
이길자 (음대57)
이난경 (음대66)
이동녕 (문리46)
이동섭 (사대36)
이동성 (의대51)
이명규 (미대73)
이명희(간호67)
이방기 (농대59)
이범모 (치대74)
이범식 (공대61)
이병무 (치대70)
이상문 (의대52)
이 선 (의대 42)
이선희 (사대53)
이성용 (음대58)
이성재 (상대67)
이승훈 (상대74)
이양구 (상대57)
이영송 (치대63)
이영식 (농대58)
이영진(간호77)
이영일(문리53)
이우근 (음대46)
이원택 (의대65)
이은희 (의대48)
이의덕(신문대원70)
이재권 (법대54)
이재봉 (공대71)
이정열(간호68)
이정옥 (공대52)
이정옥(생활71)
이정화 (공대52)
이중진 (상대3)
이중효(간호69)
이준식 (의대61)
이준호 (상대65)
이중열 (공대69)
이중희 (공대53)
이재진 (문리)
이청 (농대 61)
이충남 (농대61)
이탁성 (공대56)
이태로 (법대50)
이필권(보대원65)
이학태 (의대59)
이혜영 (공대56)
이현홍 (법대50)
이혜란 (미대)
이호진(간호74)
이홍표 (의대58)
이화숙(간호67)
임동규 (미대57)
임동호 (약대55)
임승배 (문리66)

임용오 (의대57)
임정관 (음대76)
임진자 (미대60)
임진한 (치대68)
임철민 ()
임춘수 (의대57)
임화식 (치대59)
임희영 (치대69)
장 준 (인문85)
장경구 (미대67)
장기열 (치대55)
장기창 (공대56)
장기화 (치대57)
장동석(문리66)
장인숙(간호70)
장재관 (의대61)
장진성 (약대66)
전낙관 (사대60)
전병연 (공대54)
전성대 (사대60)
전호선(수의67)
전화자 (음대60)
전희택 (의대58)
정규남 (공대52)
정동구 (공대57)
정동석 (공대57)
정두호 (공대64)
정문용 (상대54)
정복근 (사대69)
정수만 (의대66)
정원훈 (상대38)
정인택(보대원64)
정인환 (법대54)
정재형 (약대55)
정재훈 (공대64)
정진수 (공대56)
정창희 (법대54)
정태부 (사대44)
정현진(간호68)
정황 (공대 64)
재영혜(생활71)
조동준 (의대57)
조만연 (상대58)
조상하 (치대64)
조성운 (법대46)
조계길 (사대61)
조중시 (공대60)
조종용 (공대45)
조태목 (사대60)
조태준(문리59)
주수봉 (공대67)
주영희(보대원61)
지인수 (상대 57)
진성호 (공대 66)
진희철(문리50)
차기민 (공대85)
차중환 (사대54)
채희원 ()
최경복(간호69)
최경자 (약대63)

최덕순(간호59)
최동욱 (의대59)
최복영 (사대56)
최승륜 (상대53)
최영순(간호69)
최왕옥 (공대69)
최용환 (공대57)
최인용(문리65)
최재윤(문리54)
최준호 (치대58)
최중환 (치대70)
최태근 (법대48)
최홍수(자연87)
탁은숙(문리54)
탁혜숙 (음대67)
하기환 (공대66)
하상원(대원90)
한중철 (치대62)
한태호(인문75)
한혜순(간호70)
한효동 (공대58)
허영진(문리61)
현원영 (사대45)
홍병의 (공대68)
홍종화 (약대74)
홍진 (간호56)
홍현우(문리57)
황동하 (의대65)
황만의 (사대59)
황석우 (의대53)
황정식 (사대54)

이중오 (의대58)
전영자 (미대58)
전용상 (공대46)
정구영 (의대50)
정진목 (의대51)
한기빈 (공대52)
한성수 (의대54)
한용현 (의대44)
황현상 (의대55)
Georgia
계광무 (공대63)
김만복(문리72)
김서영(문리68)
김순옥 (의대54)
김영서 (상대54)
김용건(문리48)
김용자 (사대60)
김중구(수의73)
문종현 ()
박천기 (법대56)
안승덕 (상대51)
오경호 (농대60)
임수암 (공대62)
임한용 (공대60)
정경근 (농대59)
정양수 (의대60)
정인태 (의대58)
최우택 (공대76)
김용우 (공대58)
김용주 (공대73)
김윤범 (의대54)
김윤하 (공대66)
김일훈 (의대51)
김재환 (사대72)
김정수(문리69)
김정주(문리60)
김종규
김준우 (의대76)
김현욱(문리67)
김현주(문리61)
노영일 (의대62)
문병훈 (사대47)
문조훈 (약대62)
문탁영(문리55)
박 수 (의대 64)
박소녀 (치대89)
박영규 (농대57)
박인숙 (미대69)
반용근 (의대53)
배영섭 (의대54)
백윤기(문리56)
서상헌 (의대65)
소진문 (치대58)
송원희 (미대60)
송재현 (의대46)
신석균(문리54)
안은식(문리55)
양선희 (음대59)
양승표(문리57)
양홍기 (약대63)
오기창 (법대50)
오명자(간호60)
왕진한 (공대59)
윤석한 (치대58)
윤효정 (사대87)
이광선 (의대59)
이덕수(문리58)
이동근 (공대75)
이명희 (상대52)
이소희 (의대61)
이소희(간호68)
이승자 (사대60)
이승훈 (공대66)
이시영 (상대46)
이영우(문리66)
이영철 (공대64)
이용락 (공대48)
이윤모 (농대57)
이정일 (농대57)
이진주(문리55)
이춘우 (치대54)
임근식(문리56)
임이섭 (미대54)
임현재 (의대59)
장기남(문리62)
장시경 (약대58)
장윤일 (공대60)
장은숙(문리53)

Georgia

Hawaii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llinois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llinois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2010. 7. 1.- 2011. 6. 30.
관의 후원금
\$200 \$200+ \$500 \$1,000
\$200 \$200+ \$500 \$1,000
종신
이사비 \$3,000
모교발전기금 [백만원기금]
지부 분담금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Email, Amount, Card Holder Name, Card Type, Security Code, Exp. Date, and Signature.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전현일 (농대62) 정호 (공대62) 정광훈 (공대60) 정병욱 (의대53) 정승규 (공대60) 정영숙 (사대59) 정지희 (문리59) 제환수 (사대65) 조철 (공대49) 조대현 (공대57) 조중행 (의대63) 조형원 (약대50) 지예자 (미대65) 진판보 (의대72) 진보린 (약대56) 천양곡 (의대63) 최경화(간호대4) 최길용(문리57) 최순분(간호57) 최순용(문리61) 최애옥(간호47) 최의필 (의대53) 최혜숙 (의대53) 최호승 (사대58) 최희수(문리67) 한의일 (공대62) 한재은 (의대59) 함성택(문리55) 황치룡(문리65) 홍혜례 (사대72)

Indiana
곽일성 (의대60) 김연화 (음대68) 김정숙 (문리51) 박연희(간호61) 송순영(문리52) 이종일 (의대65) 임영진 (의대54) 하상태 (의대57) 한상호 (의대56) 한원중(수의83)

Iowa
서만길 (의대61)

Kansas
구명순(간호66) 배규영 (사대68) 임하진 (의대79)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Maryland
김정구 (사대49) 강길중 (약대69) 강창욱 (의대55) 공순옥(간호66) 박홍 (의대45) 권철수 (의대68) 김철 (의대62) 김명자 (법대52) 김병오 (의대63) 김승태(문리66) 김중호 (약대68) 김창호 (법대56) 김희용 (약대74) 남옥현(경영84) 노광욱 (치대39) 도상철 (의대63) 박명영 (의대68) 박관호 (약대67) 석근범(문리61) 소수영(간호64) 송병준 (약대68) 신구용 (공대59) 신상길 (의대52) 안창호 (약대70) 오인환(문리63) 오혜현 (약대55) 유덕영 (공대57) 이영수 (사대59) 이유세 (사대72) 이재승 (의대55) 이준영 (치대74) 이태영 (법대60) 이항열 (법대57) 임종식 (의대51) 임필순 (의대54) 장효강 (공대66) 진정철 (공대55) 조세진 (사대70) 조세진 (의대65) 홍영석 (공대58)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공대56) 김용호 (약대69)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홍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옥태식 (의대61) 이태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박기순(간호70)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Minnesota
권학주 (치대59) 김권식 (공대61) 김영남 (사대53) 김태환 (의대58) 남세현 (공대67) 박상빈 배병철(문리65) 변우진(인문81) 상육진 (치대87) 송창원(문리53) 왕규현 (의대56) 주한수(수의62)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최광수 (의대57) 홍훈(문리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New Jersey
강석권 (법대61) 고순정(간호69) 고애자 (사대58) 고영수 (미대57) 박상준 (약대55) 박선섭 (공대61) 권문용 (미대61) 권오근 (상대58) 기도섭 (공대67) 김경애(간호55) 김규화 (상대63) 김기웅 (치대49) 김대인 (의대59) 김동진 (사대67) 김명철 (공대60) 김봉희 (공대69) 김세환 (공대65) 김수일 (약대60) 김양호 (의대51) 김연석 (상대54) 김영애 (사대56) 김영일 (약대58) 김영진(문리50) 김영철 (의대55) 김완주 (의대54) 김옥현 (의대59) 김윤수 (상대50) 김은섭 (의대53) 김자억 (의대69) 김정빈 (약대54) 김중석(문리55) 김태호 (약대63) 김한중 (의대56) 김훈일 (공대60) 김희국 (약대54) 라준국 (공대47) 류재은 (미대71) 박건이 (공대60)

New York
강영선 (공대50) 강충무 (사대60) 계동희 (치대67) 박승용 (의대65) 권영국 (상대60) 권영대 (공대69) 김영철 (의대62) 김경호 (의대66) 김동욱 (법대55) 김동진 (약대56)

Nevada
김택수 (의대57) 이관 (공대55) 이순환 (의대53) 이학은 (약대57) 최영식 (법대59)

Ohio
고남규 (의대61) 김승자 (사대59) 김용현(경영66) 김윤성 (의대63) 김한교(문리47) 김현왕 (공대64) 명인재(자연75) 박용준 (공대61) 서윤식 (의대62) 서의원 성승환(수의75) 손기용 (의대55) 송용덕 (의대57) 송용재 (의대63) 이범세 (의대56)

Ontario
김정민 (공대66) 김경희 (음대56) 김희창 (공대64) 남장우 (사대56) 노명호 (공대61) 노제민 (문리9) 민영기 (치대61)

Idaho
김명승 (상대65) 김명희 (미대68) 김문경 (약대61) 김병숙(보대원64) 김병술 (약대52) 김석식 (의대58) 김석자 (음대61) 김성건 (공대56) 김세중 (공대50) 김승호 (공대71) 김영배 (공대78) 김용술 (상대56) 김용연(문리63) 김용학 (법대70) 김우영 (상대60) 김은태 (의대46) 김재경 (농대58) 김경순 (법대53) 김경희(간호69) 김종원 (사대58) 김종윤 (사대51) 김진승(문리53) 김진우 (간호60) 김창수 (약대64) 김태옥 (공대55) 김학수 (상대65) 김해암 (의대53) 김현우(자연53) 김현중 (공대63) 김형찬 (약대54) 남상래(간호66) 노용면 (의대49) 라홍재 (공대62) 문소자 (음대60) 민박식 (의대60) 박고자 (음대61) 박상원(문리54) 박수안 (의대59) 박순영 (법대56) 박정식 (사대59) 박찬영 (약대) 박현성 (약대60) 배상규 (약대61) 백윤자(간호64) 서경애 (음대67) 서기병 (상대55) 서상철 (의대49) 서영숙(간호67) 선우건영(의대63) 성기호 (의대57) 손경택 (농대57) 손주현 (의대) 송영순 (사대60) 신남철 () 신의정 (음대55) 안재현 (상대62) 안태홍 (상대65) 양기영 (의대49) 양금자 (미대69) 양명자 (사대63) 양세관(정대원66) 오인환 (의대67) 이상영 (상대55) 유광현 (의대58) 유무영 (공대66) 유제철 (공대65) 유경자(간호63) 유진일 (의대60) 윤병남 (사대62) 윤병하 (농대80) 윤영철 (의대57) 윤인숙(간호63) 윤정옥 (약대50) 이국진 (사대51) 이규용 (의대37) 이근수 (상대64) 이대연 (약대65)

Illinois
이대영(문리64) 이배용 (법대57) 이범무 (법대57) 이성기(간호72) 이성수 (공대56) 이영애 (치대52) 이영애 (농대59) 이정복 (공대58) 이정은 (의대58) 이주경 (상대68) 이준행 (공대48) 이혜정 (약대62) 이현호 (공대55) 이희경 (의대55) 이희자(간호70) 임건식 (음대54) 임공세 (의대61) 임대목 (의대58) 장기선 (약대61) 장영식 (법대59) 장영자(간호68) 전병삼 (약대54) 전성진 (사대58) 정인식 (상대58) 정진선(간호82) 정진우 (의대66) 정택수(문리46) 조남철 (사대59) 조대영 (공대61) 조숙자(간호59) 조양 (문리62) 조종수 (공대64) 조태환 () 조환환 (치대65) 진봉일 (공대50) 차국만 (상대56) 최병안 (공대70) 최구진 (약대54) 최석진 (사대54) 최수용 (상대55) 최영혜(간호64) 최일단 (미대59) 최태식 (의대69) 최한용 (농대58) 최형무 (법대69) 한정수(문리57) 한승선 (의대70) 한승원 (미대60) 한영수 (의대61) 한용진 (미대55) 한홍호 (법대48) 한호 () 한희준(간호66) 허병렬 (사대42) 홍선경 (의대58) 황문하(수의76) 황성현 (공대56) 황용규 (의대66)

Illinois
이영용 (의대56) 이용재 (공대60) 이원호 (의대53) 이익삼 (사대58) 정길화 (의대59) 조성구 (의대59) 채혜숙(문리70) 최인갑 (공대57) 홍준표 (의대58)

Illinois
김경숙(생활70) 이상강 (의대70)

Oklahoma
김경숙(생활70) 이상강 (의대70)

Oregon
김상만 (음대46) 김상순 (상대67) 김진호 (사대59) 김영자(간호53) 성성모 (사대67) 이은실(문리53) 최근영 (법대63) 최동근(문리50) 한영준 (사대60)

Pennsylvania
강영배 (농대59) 강준철 (사대59) 고병은(문리55) 김국간 (치대64) 김영남 (의대61) 김영우 (공대55) 김용국 (의대58) 김은옥(간호76) 김재술 (약대58) 김주진 (법대54) 남영선 (공대) 민홍식(수의60) 박영환 (약대68) 변국환 (공대75) 서중민 (공대64) 손재욱(가정77) 송영두 (의대56) 신선자 (사대60) 심영섭 (공대74) 심완섭 (의대67) 양운택 (의대58) 염극용 (의대54) 오진석 (치대56) 유영걸 (의대70) 윤원길 (의대59) 윤정나 (음대57) 이규호 (공대56) 이만택 (의대52) 이병인(수의69) 이봉재 (공대95) 이석숙(생활74) 이수경 () 이영재 (상대58) 이지훈 (미대) 이혜원 (의대55) 장성환 (의대55) 전무식(수의61) 전방남 (상대73) 전희관 (의대54) 정영자 (치대63) 정용남(문리60) 정태광 (공대74) 정홍택 (상대61) 제갈은(문리59) 조성권 (공대86) 조영일 (공대68) 조영호 (음대6) 주기목(수의68) 최종무 (상대75)

Illinois
이영용 (의대56) 이용재 (공대60) 이원호 (의대53) 이익삼 (사대58) 정길화 (의대59) 조성구 (의대59) 채혜숙(문리70) 최인갑 (공대57) 홍준표 (의대58)

Rhode Island
오세자(인문71) 주창준 (의대52)

S. Carolina
김수산 (의대52)

Tennessee
용준석 (의대48) 정성장 (의대43)

Texas
곽노환(문리48) 곽용길(문리59) 김기준 (공대61) 김대준 (공대81) 김동수 (의대61) 김석규(간호57) 김영욱(가정74) 김영창 () 김의진 (의대60) 김정훈 (공대46) 김진만 (공대57) 김종열 (의대) 김태훈 (공대57) 김현경(간호70) 김형진 (법대53) 명인성 (공대50) 민동식 (농대70) 박민자 (사대58) 박석규(간호59) 박영규 (사대66) 신달수 (공대59) 유금용 (법대50) 유길선 (농대73) 유세만 (공대59) 유황 (농대56) 이규진 (약대60) 이길영(문리59) 이진현 (의대59) 이희덕 (농대68) 임계숙 (공대56) 전중희 (의대55) 조시호(문리59) 조진태(문리57) 진기주 (상대60) 최관일 (공대54) 최귀복 (공대72) 최성호(문리58) 최용진 (의대53) 탁순덕 (사대57) 황의찬 (사대76)

Utah
김성환(문리59) 김인기(문리58) 배유한 (공대73) 정석화 (공대)

Virginia
고무환 (법대57) 곽근영 (사대51) 김광배 (공대49) 김기봉 (공대63) 김세량 (공대62) 김수용 (문리59) 김재동(문리70) 남광순 (음대64) 남훈일 (사대69) 문성길 (의대63) 박정훈 (상대55) 박엽(사회대80) 박용길 (약대56) 박운수(문리48)

West Virginia
김영화(문리65) 이기억(문리46) 이영균 (의대61) 장홍(문리61) 장세근 (의대57) 전장호 (공대55)

Wisconsin
김영화(문리65) 이기억(문리46) 이영균 (의대61) 장홍(문리61) 장세근 (의대57) 전장호 (공대55)

Wisconsin
김영화(문리65) 이기억(문리46) 이영균 (의대61) 장홍(문리61) 장세근 (의대57) 전장호 (공대55)

Illinois
박일영 (문리59) 박병일 (농대69) 박형순 (의대54) 백순 (법대58) 변단식 (사대49) 서취열 (의대55) 신용계 (의대62) 안병협 (공대58) 안태민 (공대62) 오원섭(수의53) 유종열(문리74) 윤기일 (약대60) 이내원 (사대58) 이승희 (음대55) 이연구 (미대60) 이영목 (공대59) 이윤주 (상대63) 이형모 (의대45) 정계훈(문리55) 정원자 (농대62) 최규식 (상대64) 최동현(문리50) 최완열 (상대56) 최준호 (공대60) 한의생(수의60)

Vermont
김신형 (의대50)

Washington
고광선 (공대57) 구본영 (공대65) 김영일 (공대53) 김윤국(문리49) 김인배(수의59) 김재훈 (약대72) 김주용 (의대56) 박홍 (상대68) 박종수 (공대74) 박진수 (의대56) 변종혜 (법대58) 송준 (공대55) 송애라 (음대75) 신창범 (법대73) 양용관(수의62) 유성일 (공대72) 이경희 (약대82) 이대원 (사대58) 이순모 (공대63) 이종성 (의대58) 이창렬 () 전병택 (상대65) 최경수 (사대52) 최준한 (농대58) 홍계인 (음대60) 황제규 (공대54)

Washington
고광선 (공대57) 구본영 (공대65) 김영일 (공대53) 김윤국(문리49) 김인배(수의59) 김재훈 (약대72) 김주용 (의대56) 박홍 (상대68) 박종수 (공대74) 박진수 (의대56) 변종혜 (법대58) 송준 (공대55) 송애라 (음대75) 신창범 (법대73) 양용관(수의62) 유성일 (공대72) 이경희 (약대82) 이대원 (사대58) 이순모 (공대63) 이종성 (의대58) 이창렬 () 전병택 (상대65) 최경수 (사대52) 최준한 (농대58) 홍계인 (음대60) 황제규 (공대54)

2010~2011년 동창회비

Alaska
윤계중 (농대55)
Alabama
유성무 (상대66)
Arizona
지영환 (의대59) 최윤근 (공대59)
California
강신호 (사대49) 강정훈 (미대56) 강진호 (사대58) 강희창 (공대57)

Illinois
권기상 (경영72) 권영덕 (공대54) 권오형 (사대61) 김기택(사회대) 김기태 (의대52) 김병호 (상대57) 김석홍 (법대59) 김영덕 (법대58) 김영석(문리54) 김용수(경영74) 김원탁 (공대65) 김은희(치대46) 김익창 (의대49) 김정복 (사대55)

Illinois
박인수 (농대64) 박종성 (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형철 (사대72) 박희규(수의55) 방명진 (공대73) 배병욱 (음대58) 부영무 (치대70) 서정하 (공대55) 서치원 (공대69) 신우식 (치대62) 손학식 (공대61) 심상은 (상대54) 양승문 (공대65) 오명주(간호77) 오찬수 (약대57) 윤희성 (치대65) 이성용 (음대58) 이영수 (상대60) 이영일(문리53) 이정옥 (공대52)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across various states including Florida, Georgia, Hawaii, Illinois, Indiana,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vada,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regon, Pennsylvania, Texas, Virginia, and Washington.

기타 후원회비및 기금 동문

Table listing various fund contributions and other member activities, including categories like '동창회비 \$750 이상', '관악후원금', and '기타 후원회비및 기금 동문' with specific names and amounts.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8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광경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 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6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계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캐드빌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익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여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6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삼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중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촌배 교육상담센터
이촌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 / 하드웨어 / 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감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회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8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6)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필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West Athens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268-83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냉장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경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8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l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avl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키아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451-0240 /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현(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필(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익사/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양공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외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중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태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얄 부동산
엄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강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mca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익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홍(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외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약원/문과약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익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외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외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운 심장내과 C. A. V. A
윤효운(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e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외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환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석(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무역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취(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rn,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l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웅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l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당/계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 (212)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ton NJ 08003

서비스/장금장사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이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외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중(의대 8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일기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8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195호 2010년 7월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 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 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업소특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특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8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215) 887- 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HOU

휴스턴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사

한국 장 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8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광고 게재 협조요청

모교 서울대에서 발행중인 '大學新聞' 이 미주 동문 여러 분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고 게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고 단가는 4단 1면 400만원, 5단(17cm x 37cm)기준 흑백이 50만원, 컬러 광고인 경우 75만원이다. 또 9단 세로 컬러 광고는 100만원이다.

광고 관련 연락처

전화 02-880-5215(담당자 박이진)
팩스 02-872-9511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회(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형(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회(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정광(LA) 임승패(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한중철(치대 62입) 562-860-8544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뉴욕	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욱(가정 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차기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490-5335 robertwc@juno.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델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윤희경(문리 62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2 페이지 정도(한글 약 3천자)입니다. 원고가 길 때는 부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등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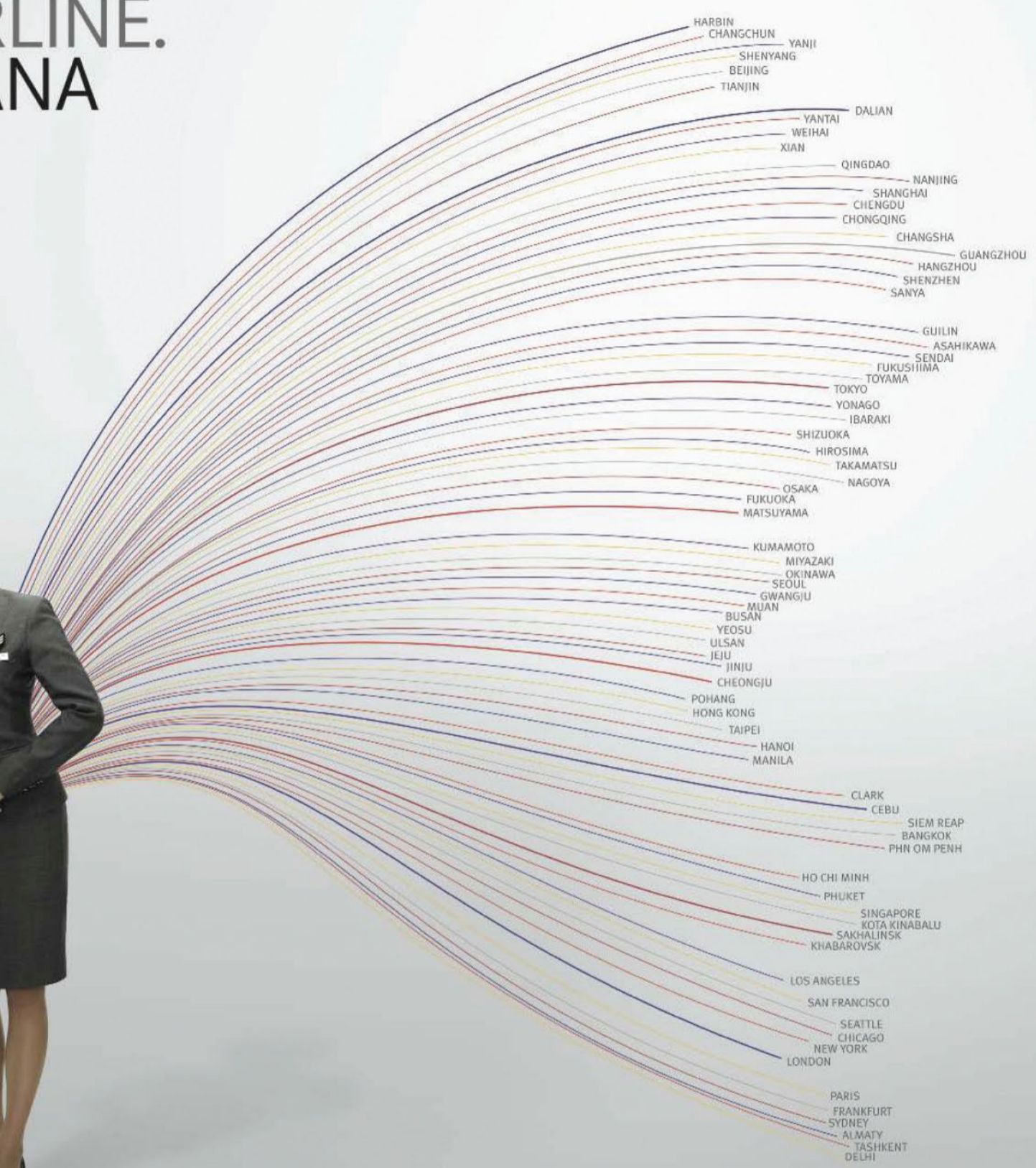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ua.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ua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 운용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가 완전히 구축되는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차차 개선될 것이므로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ua.org/>

76 CITIES. 21 COUNTRIES. 1 AIRLINE. ASIANA



Fly the Largest Network from the U.S. to Asia.

When it comes to travel to Asia, come to ASIANA AIRLINES and experience the incredible comfort, entertainment, cuisine, and award-winning passenger service that has set the standard throughout Asia, and the world. And now, with even more destinations, no matter where you're going in Asia, the numbers always add up... to Asiana. The global airline in Asia.



The number of destination above is updated on March 10th, 2010 and that can be changed anytime without prior notice.

샤프 여행사 광고

지중해 크루즈

* 광고 문안중 예약 마감 날짜를 현재의
7월15일에서 8월15일로 바꿔주세요.